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홈캐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261호

Wednesday, March 26, 2025 A

가자지구 공격 반대 시위 참여 한인 여대생 영주권 박탈 충격

SPECIAL STORY

컬럼비아대 정윤수씨 ICE 체포영장까지 받부 "표현 자유 억압" 반발



이와 관련 뉴욕 타임스(NYT)는 24일 가자지구 공격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까지 박탈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교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인 대학생이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 위기에까지 몰려 충격을 주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학생은 명문 컬럼비아대 3학년생인 정윤수(21·사진)씨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정씨를 검거하기 위해 이미 기숙사 등 여러 곳을 수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9일에는 ICE 요원들이 정씨 부모의 집까지 찾아가 정씨의 영주권 박탈과 체포 영장 발부 사실을 알렸다. 이어 다음 날인 10일 연방 검찰은 정씨의 변호사에게 정씨의 체류 신분 취소를 고지했다.

현재 정씨 측은 연방 행정부와 이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씨의 변호사인 나즈 아흐메드는 법원에 연방 당국이 그를 검거하거나 추방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며,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비시민권자를 검거 추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기숙사 수색 과정에서 불법 비시민권자에게 불법적으로 숙소를 제공한 것으로 적시한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연방 검찰 측은 학교도 관련 불법 행위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NYT는 ICE 요원들의 수색과 검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학교 측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진행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ICE 측은 정씨의 미국 체류가 반이스라엘 정서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미 같은 이유로 친팔레스타인 활동가인 무하마드 칼릴이 구금돼 논란이 되고 있다.

NYT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7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왔으며 영문학과 젠더학을 전공하고 있다. 정씨는 고등학교 졸업 당시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하는 등 모범생으로 알려졌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하마스 지지자들의 비자와 영주권을 취소해 추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NYT는 정씨가 지난해 컬럼비아대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하긴 했지만,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 않는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워싱턴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 이어져

케이스·실러 지수 1년전보다 5.10% 상승



워싱턴 지역 주택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가 25일(화) 발표한 1월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20개 도시 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했으나, 워싱턴 지역의 지수(332.54)는 전년동월 대비 5.10% 상승해 전국 평균을 앞섰다.

이 지수는 2000년 1월 워싱턴 지역 주택가격을 100으로 놓았을 때 현재의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 워싱턴 지역 주택가격은 2000년 1월 대비 232.54% 상승했다는 뜻이다.

이는 작년 12월 대비 0.09% 상승한 것이다. 20개 도시 주택가격은 상승률은 작년 10월 4.3%로 낮아졌다가 완만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작년 2-3월 상승률이 7%대 중반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승률이 둔화됐다.

워싱턴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곳

은 뉴욕(7.7%), 시카고(7.5%), 보스턴(6.6%) 등이었다.

렘프는 1.5% 떨어져 주요 20개 도시 중 유일하게 연 기준 하락세를 보였다.

니콜라스 고택 S&P 다우존스 인덱스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과열 양상을 보였던 주택시장이 작년 하반기 이후 다소 냉각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6개월 새 3.4% 하락했고, 20개 도시 중 뉴욕, 시카고, 피닉스, 보스턴만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택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던 남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옥채 기자

국책모기지기관 페니매이·프레디맥도 개혁 대상

워싱턴지역에 본사

3천명 일하는 곳에 49명만 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지역에 본사를 둔 국책 모기지 기관 페니매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 대한 개혁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두 기관은 연방주택금융청(FHFA)의 감독 아래, 미국의 모든 민간주택

모기지 증권에 대한 보증을 서고 수수료를 받는 곳이다.

워싱턴DC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페니매이는 모두 8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290억 달러가 넘는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본사를 둔 프레디맥은 79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작년 매출액이 214억 달러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빌 펠트 FHFA 청장은 프레디맥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2900명이 출근해서 일해야 하지만 현재 49명만 정규직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펠트 청장은 지난주 두 기관의 이사회 이사 14명을 해고하고 스스로 이사회 의장에 오르면서 두 기관에 대한 장악력이 더욱 커졌다.

펠트 청장은 20일 프레디맥의 다이애나 리드 CEO를 해고하고 FHFA 2인자인 지나 크로스 총무국장도 모니카 매튜스 인사국장을 휴직처리했다. FHFA는 지난주에도 노조 소속 직원 35명을 보직해임했다.

또한 두 기관 직원들에게 5월 1일부터 주 5일 사무실 근무를 명령했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대규모 해고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김윤미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해입
순금 야기 플랜지 및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금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쇠고기 가격, 1년전보다 7.8% 상승

관세 올리면 수입가격 더 올라갈 듯 한인마켓들 인상 불가피

소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인들의 장바구니 물가도 더욱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워싱턴 지역 소고기 가격은 전월 대비 2.4%, 전년 동기 대비 7.6% 상승했다.

2월 기준 평균 소고기 가격은 다진 소고기 경우 파운드당 5.65달러, 뼈 없는 등심 스테이크는 12.00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9.7%, 1.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8%로, 소고기 가격이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인 마켓업체가 체감하는 전반적인 소고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10% 정도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소고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축산업 고전에 따른 공급 감소, 인건비 포함 높은 제반 비용 증가, 꾸준한 소비자 수요를 꼽는다.

웰스파고 농식품연구소의 코트니 슈미트는 “목축 소 숫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울해 소재고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무부(USDA)는 1월 말 기준 전국 소와 송아지 수는 8670만 마리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고 보고했

다. 농무부는 울해 국내 소고기 생산량이 266억 8500만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기업은 소고기 공급처를 캐나다와 멕시코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일단 4월 초까지 한시적 유예 조치가 취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소고기 수입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업체에서는 수익 감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가 발효되면 결국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업체는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 소고기에도 관세가 적용되면 4-5월부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워싱턴DC에서도 홍역환자 확진

워싱턴DC 보건국이 타주 여행에서 돌아온 한 남성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워싱턴 지역 레이건 공항으로 들어왔으며, 3월19일 앰트랙 열차를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자는 19일 오후 7시30분부터 20일 오전 1시30분까지 앰트랙 노스 이스트 175열차를 탑승했으며 워싱턴DC 유니온역에 머물렀다.

또한 발열 증상으로 22일 오후 7시부터 11시 사이 애덤스 모건의 메드스타 어전트케어를 방문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올해 홍역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정밀 역학조사가 뒤따르고 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은 울해 들어 300명 이상이 홍역에 감염돼 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였으나 일부는 미국 내에서 감염된 사례다.

해고공무원 취업 급증, 고학력자 취업 힘들어

최근 해고된 연방공무원이 대거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으나,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울해 연방정부 수습공무원 2만 4천명이 해고됐다. 연방법원이 1만 6천명에 대한 복직을 명령했으나, 연방정부는 대법원까지 끌고갈 생각이다.

소속 공방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한 해고공무원들이 서둘러 고용시

장에 들어서고 있으나, 고학력자 일자리 문호는 펜데믹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취업사이트 인디드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제개발처, 연방금융소비자보호청, 농무부, 항공국, 환경보호청, 국립보건원, 내무부, 에너지부 등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연방기관 소속 공무원의 취업 활동이 전년 대비 52%나 증가했다.

메릴랜드대학 남녀 농구 모두 16강 진출

메릴랜드 대학 여자농구팀이 24일 알라배마 대학을 111대108로 물리치고 16강에 진출했다.

4번 시드의 남자농구팀도 12번 시드의 콜로라도 스테이트 대학을 72

대기로 물리치고 16강에 올랐다. 남자농구는 15번째 16강의 위업을 달성했다.

메릴랜드대학 남자 농구는 2001년 4강, 2002년 우승 했다.

구글 워싱턴DC에 자율주행차량 승인 요청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가 워싱턴DC에 2026년부터 자율주행차량 시범 운행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웨이모는 이미 LA 등 6개 도시에

서 20만회 이상의 유료택시 서비스를 제공한 바있다. 워싱턴DC는 차량 내 안전요원 배치 등 세부규정을 마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볼티모어 양로원 입주, 환자 약탈 혐의로 5년형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양로원 ‘리커징 하츠 어시스티드 리빙 펠레티리’의 주인 트라보니아 스타하우스가 환자 약탈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메디케어 등 정부 지원 보환 관련 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명령받았다. 김옥재 기자

국제청 고강도 구조조정에 “세수 10% 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청(IRS)의 인력 감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울봄 세수가 예년보다 10%가량 급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 재무부와 IRS 관리들이 내달 15일 세금 신고 마감 후 연방 세수가 2024년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IRS의 지난해 연방 세수 총액은 5조 1천억달러로, 울해 세수 감소분은 5천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IRS에도 대대적인 감원과 조직 슬림화 칼바람이 불어닥쳤기 때문이다. DOGE는 전체 직원이 9만명에 달하는 IRS의 직원을 2만명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미 1만 1천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WP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미루거나 납부해야 할 잔액을 내지 않고 관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IRS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고액 납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다수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IRS의 대량 감원으로 세무 당국이 자신의 계좌를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IRS 측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정권 인수팀에 공격적인 감원과 예산감축이 과세 지연, 세수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에는 전직 미국 국제청장

들이 이와 같은 우려를 정리해 뉴욕타임스에 투고도 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세금 신고 시즌 한복판에서 6천700명의 국제청 직원을 해고했다”면서 “이는 큰 실수로, IRS의 인력과 자원이 급속히 줄면 정부의 징세 효율성도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IRS의 구조조정 외에 지난 1월 있었던 로스앤젤레스의 대규모 산불 사태도 연방 세수 급감 요인이라는 관측도 있다.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티머 텔루이는 “LA의 부촌 지역에 발생한 산불들로 세금 신고를 10월로 미루는 부유층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워싱턴 날씨 (°F)

27일(목)	61~40	☀️	30일(일)	73~63	☁️
28일(금)	64~57	☀️	31일(월)	74~44	☀️
29일(토)	82~62	☁️	1일(화)	57~41	☀️

3월 26일(수) 55~34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1-495 가까운 1층 콘도 킹스팍 방1, 화1 \$1,600	RENT 4층 타운하우스 현면 방4, 화4 1/2, 차고2 \$4,100	RENT 4층 타운하우스 현면 방4, 화4 1/2, 차고2 \$3,900
---	--	--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이승만 리더십 오늘날에 되새긴다”

건국 대통령 탄신 150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50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가 25일(화)이 열려 이승만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워싱턴 지회(지회장 정인량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치적을 되새기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남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준석 목사가 강사로 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현 시국에 어떠한 울림을 주는 지 알려졌다.

황 목사는 “4.19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겪었으나 이들을 모두 독재자로 알았으며,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 투사들을 영접하기도 했다”면서 “뒤늦게 이승만 박사의 위대함을 깨친 후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 전했다. 그는 “북한 김일성도 이승만 박사의 외교정책을 연구해 ‘벼랑끝 전술’을 개발하고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승만 박사의 치적을 모두 망각했다”면서 “후임자가 전임자의 업적을 모두 지우려는 좋지 못한 선례가 계속되면서 현재 한국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전쟁의 경우도 “김일성 입장에서 이승만이 ‘다된 밭에 재를 뿌린’ 인물이기 때문에 철저히 연구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 영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발전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워싱턴 지회(지회장 정인량 목사)가 25일(화) 이 박사 탄신 150주년 및 정기총회를 가졌다.

속되면서 현재 한국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전쟁의 경우도 “김일성 입장에서 이승만이 ‘다된 밭에 재를 뿌린’ 인물이기 때문에 철저히 연구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 영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발전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한미나라사랑기도운동연합회

3월 정기모임 개최 김성훈 목사 '85세 갈렙'

한미나라사랑기도운동연합회(회장 방혜식 목사, 이하 기도회)가 25일 애난데일 소재 메시아장로교회(담임목사 한세영)에서 3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최인동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심은경 집사가 반주를, 이억섭 목사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이날 예배 설교는 김성훈 목사(워싱턴신학교 교수)가 인도했다.

김 목사는 '85세 갈렙'을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유전자(DNA)로 인해 걸 모습은 후퇴하지만 속은 더욱 강건해 진다”면서 “천국 기업을 받기 위해 젊은 청년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해 영적 승리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나이가 85세였으나, 용기를 내서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 특별히 이날 기도회에는 마하나임 찬양대가 참석해 봉헌송을 드렸다.

이어진 특별기도 순서에서는 방혜식 목사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정세권 장로가 ‘미국을 위하여’, 이순기 장로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한 후, 통성으로 합심기도를 이어갔다.

김성훈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예배를 마친 참석자들은 애난데일 소재 ‘중화원’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교제를 이어갔다.

김윤미 기자

‘실종 한인가족’ 사고 연루 가능성

그랜드캐년 방문 후 실종된 한인 가족(본지 3월 21일자 A-1면)이 뒀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발견돼 당국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애리조나 공공안전국(AZDPS)과 코코니노카운티 셰리프국(CCSO)은 2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사건 당일 40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22중 추돌사고 차량 가운데 BMW SUV 차량이 포

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종된 한인 가족은 거주 번호판(9KHN768)이 부착된 2024년형 흰색 BMW X5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당국은 실종된 한인 가족이 지난 13일 22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애리조나 윌리엄스 인근 I-40 프리웨이 사고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조사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잔해 속에서 추가로 인체 유해를 발견했다”며 “유해가 실종된 한인 일 가족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현장에 있는 차량들은 크게 훼손됐으며, 당국은 현재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CSO 측은 “유해 훼손이 심각해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신중하게 조사 중”이라며 “아바파이카운티 검시소가 감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한길 기자

된 잔해 속에서 추가로 인체 유해를 발견했다”며 “유해가 실종된 한인 일 가족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현장에 있는 차량들은 크게 훼손됐으며, 당국은 현재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CSO 측은 “유해 훼손이 심각해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신중하게 조사 중”이라며 “아바파이카운티 검시소가 감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한길 기자

월그린 약값 환급 받는다

4월17일까지 개인당 최대 5천불

대형 약국 체인 월그린(Walgreens)에서 처방약을 구입한 고객이라면, 집단 소송 합의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

게 된다. 연방법원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24년 11월8일 사이 월그린에서 처방약을 구입한 고객들은 1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 합의금 정산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환

급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환급을 받으려면 법원 중재 웹사이트(savingschubsettlement.com/file-a-claim)을 통해 오는 4월 17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 측은 “환급 금액은 개인당 최대 5천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영기 기자

4월6일 박희춘 회장배 축구대회

워싱턴 대한 축구협회(회장 박희춘)가 오는 6일(일) 박희춘 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올해 협회가 주관하는 첫 시즌 대회로, 오전 8시 스트림펠로 우 공원(13112 Autumn Willow Dr, Fairfax, VA 22030)에서 열린다.

협회 산하 소속팀은 조은 축구회(회장 지선용), MD 청룡(회장 김경

환), 화랑(회장 안교)이다.

협회는 이번 대회 외에도 5월6일 화랑배 축구대회, 8월10일 광복절 축구대회, 9월7일 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 10월12일 청룡배 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29일(토) 오후 6시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대회 운영 실무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오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두노

DUO NY 212-915-7115

KCSC 워싱턴한인복지센터

51주년 기금 모금 만찬

KCSC's 51st Annual Gala

Bridging Generations, Empowering the Future

April 6, 2025 • 5PM
Hilton McLean Tysons Corner
7920 Jones Branch Dr., McLean, VA 22102

행사 일시 2025년 4월 6일 (일)
오후 5:00 리셉션, 오후 6:00 프로그램

행사 장소 Hilton McLean Tysons Corner
7920 Jones Branch Dr., McLean, VA 22102

▶ 후원금: \$200/인
▶ 참석 및 후원 문의: 2025년 3월 29일까지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지니아 지역: 703-354-6345 ■ 메릴랜드 지역: 240-683-6663

후원자 명단 (3/24/2025 현재)

Keynote Speakers

강동인 이사, 강수진 이사, 김종연 이사, 김상희 이사, 김지원, 김진아 이사장, 모니카 리, 변성림 이사, 복지센터 주택공사, 사라 강 이사, 서진우 이사, 에이미 박 이사, 연수진 이사, 열린문장로교회,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와싱턴한인교회, 워싱턴가정상담소, 워싱턴성광교회, 워싱턴지구촌교회, 이상남, 임영 이사, 제이미 박 이사, 조성록 이사, 존 김 이사, 지구촌마켓, 크리스티나 김 이사, 한미장학재단, 한인연합장로교회, Dr. Alex & Kay Lee, Dan Chun & Jill Park, DMV KAMA, Evergreen Title, Gimga Group-Mihae Kim Stefani, Humana & Smart Insurance, Izakaya Nana power by IVEA concepts, Jurie Foundation, Kwang Lee Construction Company, Misuk & Forrest Hare (Summit Knowledge Solution), Morgan Stanley (Emilio Sanchez), Peter & Haejin Rim, Pohanka Hyundai, Steven Toy & LinkedIn, Yongkoo Kang & Netflix

Tim Hwang
Executive Chairman & Co-founder of FiscalNote

Edward Lee
Award-Winning Chef & Co-founder of the LEE Initiative

이사장: 김진아 / 만찬 위원장: 임혜진 / 만찬 부위원장: 임영

CBB뱅크 동부 진출한다

뉴저지 포트리지점 연준, 설립 신청 허가

CBB뱅크(회장 제임스 흥)가 설립 추진 중인 뉴저지 포트리지점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CBB뱅크는 동부 지역에 첫 지점을 열게 됐다.

연준은 지난 21일 웹사이트를 통해서 CBB뱅크가 지난해 9월 접수한 지점 설립 신청서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점은 뉴저지 포트리지 시내 오피스 빌딩(1 Bridge Plaza N, Suite 655)에 자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CBB뱅크는 현재 거주 외에 하와이와 텍사스에 지점을 운영 중이다. 포트리지점은 동부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CBB뱅크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연준의 허가는 지점 설립 허가 절차 중 마지막에 해당한다”며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그랜드 오픈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연준 측은 은행의 재무 상태, 자본 적정성, 향후 수익 전망, 해당 지점 개설로 인한 지역사회의 편의성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점 설립을 승인



CBB뱅크가 뉴저지에 첫 동부 지점을 오픈하게 됐다. LA 월서 블라바드에 위치한 CBB뱅크 본점. 박낙희 기자

했다고 전했다.

포트리지는 뉴저지의 대표적인 한인 밀집지역으로 많은 한인은행들이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뉴저지에 본사를 둔 뉴밀레니엄뱅크와 하나은행USA는 물론 남가주의뱅크오브호프와 한미은행도 포트리지에서 활발히 영업 중이다. 뉴욕의 우리아메리카, 신한아메리카, 뉴뱅크와 조지아의 메트로시티뱅크 또한 포트리지에 자리 잡고 있어 한인은행의 ‘격전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에 지명된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CBB뱅크 포트

리지점 설립 허가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을 첨부했다.

그는 연준 웹사이트에 올라온 성명서를 통해서 “설립 신청은 관할 연방준비은행이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단 한 명의 시민이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사회 전체의 심의와 표결로 넘어왔고 그 결과 거의 6개월이 지나서야 이사회에 상정돼 결론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서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를 보여주는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반대 의견에 대한 절차적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마존 올해 첫 대규모 할인 행사

오늘부터 ‘빅 스프링 세일’ 뷰티·테크 등 최대 40% ↓



아마존이 올해 첫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최근 아마존은 오늘(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일주일간 ‘빅 스프링 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7월에 열리는 업체의 연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보다 약 4달 앞서 열리는 이벤트다.

아마존에 따르면, 이번 세일에서는 뷰티 제품과 의류, 스포츠·여행 필수품, 야외 가구 및 정원용품 최대 40% 할인, 잔디 관리 및 그릴 장비, 보관 및 침구류 최대 35% 할인 등이 포함된다. 일부 아마존 제품에는 더 큰 할인이 제공된다. 업체는 50인치 아마존 파이어 TV는 33% 할인, 블링크와 링 감시 카메라는 최대 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빅 스프링 세일이 기존 프라임데이와 다른 점은 프라임 회원이 아니

어도 누구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아마존 웹사이트(amazon.com)에 접속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쇼핑이 가능하다.

단, 프라임 회원만을 위한 ‘프라임 스프링 달’ 배지가 붙은 한정 할인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더 큰 할인 폭을 원한다면 프라임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세일은 ‘아마존 하울’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한 세일도 추가했다.

아마존 하울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모방한 모바일 앱 전용 서비스로 20달러 이하의 다양한 소액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아마존 하울 제품 또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우훈식 기자

핸들 접혀 낙상 위험...스쿠터 리콜

주행 중 넘어질 위험이 있는 전동 스쿠터 22만 대가 리콜된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LA를 기반으로 둔 수입사 세그웨이는 주행 중 낙상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자사의 전동 스쿠터 모델 ‘나인봇 맥스 G30P(사진)’와 ‘맥스 G30LP’ 총 22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의 원인은 주행 중 핸들 바 또는 연결 기둥이 갑자기 접혀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은 모든



G30P 및 G30LP 모델에 해당하며, 각각 검은색과 회색 본체에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제품 측면에는 모델명이라벨로 부착돼 있다.

G30P는 약 46인치 길이에 무게가 42파운드, G30LP는 44인치 길이에 45파운드 정도로 크기와 무게에 차이가 있다. CPSC에 의하면, 세그웨이는 현재까지 총 68건의 핸들 접힘 고장 사례를 보고받았으며, 이 중 찰과상, 타박상, 열상, 골절 등 20건의 부상이 포함됐다.

세그웨이는 해당 스쿠터를 구매했다면 즉시 사용을 중

단할 것을 당부했다. 세그웨이는 웹사이트와 고객센터를 통해 무상 점검 및 유지 관리 키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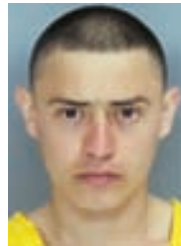
업체는 접이식 메커니즘의 상태 확인 및 수리에 필요한 공구와 설명서를 키트에 동봉해 사용자가 직접 안전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리콜 대상 제품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전국의 베스트바이, 코스트코, 월마트, 타깃, 샘스클럽 등 주요 소매 매장과 세그웨이 웹사이트 및 아마존 등 온라인에서 600~1000달러 사이에 판매됐다.

우훈식 기자

불체자가 또 살인

추방 앞둔 온두라스 출신 조지아주 50대 여성 살해



가에서 카밀리아 윌리엄스(52)를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장소는 한인마켓인 남대문시장 스머나 지점과 불과 도보 10분 떨어져 있는 곳이다. 경찰은 주민의 진술과 인근 CCTV를 확보해 17일 용의자를 체포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조지아주에서 불법 체류자에 의한 살인 범죄가 또 일어났다. 지난해 2월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간호대생 레이큰 호프 라일리가 베네수엘라 출신 불체자에게 피살된 지 1년만이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불체자에 대한 ‘엄벌’ 의지를 다짐하면서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캡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는 헥터 데이비드 사가스투메 리바스(21·사진)로 지난 2021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뒤 풀려난 불체자로 확인됐다.

리바스는 지난 12일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1시 사이 마리에타 주택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리바스는 2021년 3월 불법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온 온두라스 출신 불법 체류자다. 당시 국경순찰대에 의해 체포됐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법원 출석을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이후 2023년 7월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되지 않았다.

장채원 기자

FBI도 ‘테슬라 지키기’...테러라며 TF 만들어 방화사태 대처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테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급증하는 ‘테슬라 공격’에 대응하기로 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미국 내 ‘반(反)트럼프 운동’의 집중 타깃이 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방어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24일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

르면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테슬라를 향한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단속하고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들어갔다”고 TF 구성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테슬라 방화를 “국내 테러”라고 규정하며 “책임 있는 자를 추적하고 붙잡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

조했다.

TF에는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BATFE)도 참여해 FBI와 공조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미국 정부호출부(DOGE)를 이끌며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 구조조정을 지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지



난달부터 미국에서 머스크에 반대하는 시위와 테슬라 제품 불매운동 등이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테슬라 차량과 매장, 충전소 등을 겨냥한 방화·총격 등 공격도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지로 “맞붙”을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직접 테슬라 차를 시승한 뒤 구매하는 등 사실상 ‘테슬라 관측’에 나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테슬라에 무슨 짓을 하면 지옥을 겪게 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1석 5조 통합보험



MetLife, Prudential, Nationwide, Aetna, Genworth Financial, Zurich, AIG, MassMutual, Allianz, Athene, Columbus Life Insurance Company, Lincoln Financial Group, AccordiaLife, National Western Life, LSJ, MDRP. 재정보육, 생명보험, 노후대책, 원금보장 연금상품, 재산상속, 주택/비즈니스 용자, 장기 간호 보험, 학자금 교육, 건강보험, 개인 건강보험, 단체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메디케어.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버지니아 (리치몬드) 703.865.8788, 매릴랜드 (MD) 410.995.8074

35년 살았어도... 불법 체류 부부 결국 추방

범죄 기록 없지만 불체면 대상 생이별 세 딸 "너무 가혹" 호소

오렌지카운티에서 35년간 살다가 이민 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된 부부가 결국 콜롬비아로 추방됐다.

LA타임스는 지난달 21일 정기 이민 체크인을 위해서 ICE 사무실을 찾았다가 구금된 뒤 추방 대기 중이던 벨스·글레디스 곤잘레스 부부가 최근 콜롬비아로 추방됐다고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 1989년 거주 샌이스드로 지역을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미국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정기 이민



글레디스 곤잘레스(맨 왼쪽)와 벨스 곤잘레스(아기를 안고 있는 이) 부부가 세 딸, 손주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편드 미 캡처]

체크인을 하면서 별다른 제한 없이 살아오다 미국에서 쫓겨났다.

이로 인해 부부의 세 딸인 제시카, 스

테파니, 개비 곤잘레스는 미국 시민권자로 한순간에 부모와 생이별하게 됐다. 딸들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고펀

드미(GoFundMe)를 통해 범법 비용 및 콜롬비아 정착 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세 딸은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번 조치는 너무 잔혹하다"고 호소했다.

인권 단체들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전과가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엔젤리카살라스 인권 이민자 권리 연합(CHIRLA) 사무총장은 "시카고, 텍사스, 플로리다 등에서도 불체자들이 정기 이민 체크인 중 구금 및 추방된 사례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법을 어기지 않았고, 설령 어겼다고 해도 사소한 수준이라 그들이

받은 처벌은 그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을 더했다.

단체들은 특히 불체자들이 정기 이민 체크인을 하지 않는 것도 추방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전과 기록이 없는 불체자들의 추방은 향후 더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ICE가 구금 중인 이민자 절반이 범법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들이 단속돼 추방당하면 다시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며 불체자들이 제 발로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준호 기자

일본 정계 뒤흔든 통일교, 도쿄지법 '해산 명령' 내렸다

(현 가정연합)

아베 암살범 모친 '거액 현금' 논란 정치 자금 불똥... 기시다 총리 퇴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살해범의 '모친 고액 현금' 발언 이후 일본에서 논란에 휩싸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일본 법원이 25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

가정연합 측은 즉시 항고에 나설 뜻을 밝힌 상황이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가정연합은 일본에서 해산 명령을 받는 세 번째 종교단체가 된다. 도쿄지법

법원은 이날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했다. 민법상 불법 행위(기부 권유)가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법원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카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사회적으로 고액 현금 문제가 대두하자 취한 조치였다. 당시 가정연합과 집권

자민당 의원들 간 유착이 드러나면서 불똥이 정치권으로 튀기도 했다. 정치자금 논란까지 겹치면서 기시다 내각에서 각료 4명이 낙마했고, 정권 지지율은 10%대까지 급락했다. 여러 스캔들 속에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9월 결국 퇴진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지난해 2월부터 비공개로 신자나 교단 이탈자 등을 불러 기부 경위와 실제 등을 청취했다. 지난 1월 문과성과 가정연합 양측 모두 최후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 심리를 종결

했다. 문과성은 "(가정연합은) 1980년 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신자에게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제한을 가해 정상적인 판단이 방해되는 상태에서 현금이나 물품 구매를 시켜 고액의 손해를 입히고 생활의 평온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자들의 기부 권유에 대해 가정연합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민사 판결이 32건이며 피해액은 204억 엔(약 1991억), 관련 피해자가 약 155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법원이 민법상 불

법 행위를 근거로 종교단체에 해산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간 일본에서 해산 명령을 받은 사례는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에서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2002년 각종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묘카쿠지(明覺寺) 등 두 곳뿐이다. 두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해산됐다.

가정연합은 판결 직후 항고 의사를 밝혔다. 향후 형이 확정되면 교단은 종교법인 자격을 잃는다. 이 경우 자산 소유 및 세금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임의단체 등으로 존속하면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승호 기자

미 대사관 "한국 의료진 부족, 비상보험 들어라"

주한 미국 대사관이 한국을 여행하는 자국민에게 한국 내 의료진 부족 사태로 인한 의료 서비스 접근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주의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의정 갈등으로 대규모 의료진 부족 사태가 지속되면서 응급 진료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10일 작성된 게시글에서 대사관은 "한국의 전국적인 의료진 부족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1년 간

의사 부족으로 인해 주요 대형 병원이 수술을 연기하고 진료 예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국제 진료소가 있는 대형 병원들도 이에 속한다"면서다.

대사관은 이어 "주요 병원들이 부상 또는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진료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응급 의료 서비스 접근과 관련한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례도 보고됐다"며 "생명을 위협하지 않거나 덜 긴급한 경우 응급 치료가 지연

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병원, 진료소, 약국의 응급 진료 서비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지만, 한국어로만 제공된다"며 번역기 사용을 권하기도 했다.

대사관은 게시글 말미에 대문자로 표시한 굵은 글씨로 취해야 할 조치(ACTIONS TO TAKE)도 나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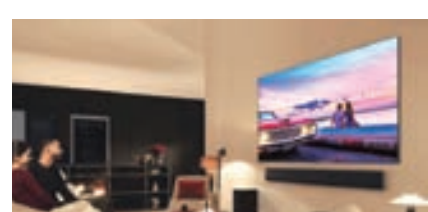
박현주 기자

LG, 컨수머리포트 TV 평가 '썩썩이'

LG전자의 프리미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라인업인 '올레드 에보(사진)'가 컨수머리포트의 TV 부문 평가에서 1위부터 10위를 모두 차지했다.

지난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데이트된 컨수머리포트 TV 평가에서 종합 점수 88점 이상을 받아 상위 10위 안에 든 제품은 모두 LG전자의 올레드 에보 시리즈였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올레드 에보 G4' 제품의 55·65·77형 3가지 크기 모델은



모두 90점을 받아 전체 400개 평가대상 중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컨수머리포트에서 TV 제품이 90점 이상을 받은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가람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돌인 마이클 장

맞춤 용자의 돌인 마이클 장
맞춤 용자의 돌인 마이클 장
맞춤 용자의 돌인 마이클 장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저"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역조림) 웨일리노래방 뉴타운홈

미락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은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Baltimore
(301) 962-8300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정의선, 백악관서 투자계획 발표를” 트럼프의 깜짝 초대

현대 31조 대미투자 뒷얘기

트럼프 “언제든 찾아와라” 화답 수개월 접촉했지만 화답 없다가 갑작스럽게 “백악관 오라” 요청

‘트럼프 관세’의 힘은 됐다. 한국의 대미 수출품목 1위(지난해 327억 달러)인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9일 앞두고 현대차그룹이 210억 달러(약 30조8500억원)짜리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가 강력하게 효과를 내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생산설비 증대 및 현대화에 86억 달러 ▶루이지애나주에 270만t 생산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립하는 등 부품 및 물류에 61억 달러 ▶미국 자율주행·AI기업 투자 및 미시간주 소형모듈원자로(SMR), 텍사스주 태양광 발전소 건설(63억 달러) 등에 투자된다. 또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해 국내의 완성차·철강 공장 등에 쓸 예정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백악관 엑스]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이뤄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210억 달러(약 30조8500억원) 대미 투자 공식 발표는 현대차그룹도 깜짝 놀랄 만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25일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현대차그룹 측에 최근 “백악관에서 정 회장이 직접 투자계획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는 26일(현지시간) 열리는 조지아주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혹은 JD 밴스 부통령의 참석을 목표로 백악관과 수개월간 접촉하고 있었다. 하지만 참석 여부를 알려주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백악관 발표’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마음을 졸여왔던 현대차그룹은 로선 트럼프 2기 체제에서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투자계획을 밝히게 된 점에 “깜짝 놀랐다”는 분위기다.

정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전

후 별도 티타임은 가지진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발표에 나선 6분가량의 생중계를 통해 협상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정 회장은 겸손과 친밀감을 내세웠다. 협상에서 비교적 약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루스벨트룸에 도열해 있던 정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깍듯이 인사하고 이후 3분40초간의 발표 내내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정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도 2019년 6

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와 2020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의 만남을 강조하며 HMGMA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기도 했다. 특히 정 회장은 백악관 회견에서 짙은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했는데 2019년 수석부회장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의 서울 회담 당시 착용했던 넥타이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안방인 백악관으로 글로벌 기업 총수를 불러 조 단위 투자계획을 발표시키고 있다. 이 같은 형식은 지난 1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지난달 웨이저자 TSMC 회장에 이어 정 회장이 세 번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회유와 압박을 동시에 구사했다. 정 회장 발표에 앞서서는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발표가 있다”라며 현대차그룹을 치켜세웠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는) 4월 2일은 우리가 빼앗긴 돈을 다시 되찾는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완성차 기업을 압박했다.

정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 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각 기업에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압박한 다음, 투자가 발표되면 마치 혜택을 베풀 것처럼 나서는 프레임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수단을 적극적으로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김효성·오상권 기자

위기의 ‘현대판 숄탄’ ... 반에르도안 시위 격화, 1418명 체포

야당 대선후보 구금, 튀르키예 혼란 수십만 시위대, 도끼·화염병 무장 22년째 집권 에르도안 지지율 급락

튀르키예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의 구금에 항의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시위가 일주일 가까이 계속되면서 ‘현대판 숄탄’이라 불리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71)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로 번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내무부는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에크렘 이마모을루(54) 이스탄불 시장이 지난 19일 테러 및 부패 혐의로 체포된 후 잇새간 1418명이 불법 시위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내무부에 따르면 시위대가 화염병, 도끼, 염산액, 돌멩이 등을 이용한 폭력 시위를 벌여 경찰관 123명이다 쳤다.

에르도안 정부는 도로를 폐쇄하고 소셜미디어 통제에 나섰지만, 튀르키



24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경찰이 에크렘 이마모을루 시장의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대들 향해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다

예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경찰과 충돌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튀르키예에서 10년 만에 일어난 가장 큰 시위”라고 전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테러조직으로 규정된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지원하고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부패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23일 그의 구금을 연장하고 시장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야당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최대 경쟁자인 이마모을루 시장을 구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HP

는 24일 대선 경선에서 구금 중인 이마모을루 시장을 2028년 차기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하지만 이마모을루 시장이 대선에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 관측도 나온다. 튀르키예의 대선 후보 조건 중 하나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여서다. 앞서 지난 18일 이마모을루 시장의

모교인 이스탄불대학은 학적에 오류가 있다며 그의 학사 학위를 취소한 상태다.

22년째 장기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헌법상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또다시 개헌으로 권력 연장을 꾀할 수 있어 야권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3년 3선에 성공한 이후에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로 급격한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7년 75%에 달하던 지지율은 지난해 43%까지 떨어졌다. 잇따른 시위에 튀르키예의 주가지수가 한때 16.3%나 폭락하는 등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선 악재가 겹쳤다.

이코노미스트는 “계속되는 시위와 잔혹한 탄압 조치가 튀르키예 경제에 대한 신뢰를 더욱 흔들 가능성이 있다”며 “에르도안 대통령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전했다.

장윤서 기자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백성호 공인회계사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초조한 야당 “헌재, 보이지 않는 손 있나”... 한 재탄핵도 거론

(한덕수 총리)

야당, 잇단 불리한 판결에 위기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5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느라 안간힘을 썼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전날(24일) 결정을 고려할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오늘 당장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원칙론적 차원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주장하면서도 메시지의 무게중심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에 뒤 오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마 후보자 임명 촉구 총력전 모드가 된 건 그간 민주당이 선고일로 기대해온 14일과 21일이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가고, 당 안팎에서 ‘4월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생긴 변화다. 당초 민주당은 선입선출(先入先出·사건 접수 순서대로 결정)의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한 대행의 선고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3월 중순 선고’에 대비한 정치 일정을 준비했다. 지난 12일부터 계속해 온 의원단의 여의도~광화문 도보 행진이 이런 타임라인에 맞춘 전술이다.

하지만 지난 24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먼저 결정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인용 정족수 6명을 못 채우고 있어 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윤사 출신 의원은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도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퇴임 사흘 전”이라며 “문형배-이미션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직전까지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



민주당 ‘천막당사 회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헌재 수상하다, 이해 어려워”

한 총리엔 “마은혁 미임명, 파면사유”

내부선 “4·18 직전 윤 선고” 우려도

자는 “갈수록 진보 성향이 뚜렷한 마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압박해 안정적인 탄핵 인용을 이끌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이 이날 중에만 합류하면 변론이 재개되더라도 문형배-이미션 재판관 퇴임 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윤사 출신의 의원은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봤을 때) 마 재판관 합류는 탄핵 인용에 무조건 좋다”며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그간의 재판을 되짚는 변론 갭을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녹취록의 중요 부분만 읽는 식의 간소한 절차를 택

하면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촉구’에 머물던 헌재를 향한 메시지는 ‘우려’와 ‘경계’로 수위가 높아졌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 일자를 미뤄는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최고위원은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 갑자기 모두 바보가 된 느낌”이라며 “이러바 ‘윤(석열)-이(재명) 동시제거론’을 흘려 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헌재 앞 릴레이 회견에서 “내일 이 대표 선고를 보고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는 것은 정치적 탄핵 재판이라는 불명예를 헌재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들어 민주당에 불리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졌다는 점도 민주당의 초조함을 배가된 이유다. 윤 대통령 석방(8일),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 기각(13일), 한 총리 탄핵 기각(24일) 결정 때마다 야권은 분노했고, 여권이 환호했다. 수도권 지역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석방을 기점으로 법원 기류가 약속한 듯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만에 하나 이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헌재가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심새롬·김나한 기자

국민 알권리인데... 줄탄핵 변호사비

(수임료)

국회, 공개 거부

국회 “영업비밀”... 여당 “공개해야”

국회가 탄핵소추를 대리하는 변호인에게 지급한 개별 수임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25일 “영업상 비밀이 공개된다”며 거부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가 탄핵소추에 쓴 법률 비용 지출 결의서를 공개하리”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출 결의서를 공개하면 수임료와 법무법인 영업상 비밀이 공개된다”며 “해당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회사무처는 22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에 쓴 법률 비용 총액(4억6024만원)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수임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중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국민 세금으로 지출하는 수임료의 구체적 내역 공개를 꺼리자 국민의힘은 “친야 성향 변호인단에 탄핵심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해 4월 법무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변호인 수임료와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보장과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가 떳떳하다면 어떤 변호사들에게 얼마의 수임료를 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기자

한 결정문 ‘적극행위 없어 기각’... 윤 탄핵 힌트? 무리한 해석?

(한덕수 총리)

헌재 “한, 계엄 관련 적극행위 없어” 야당선 “적극행위 땀 파면이란 뜻” “단어 하나로 유추 어려워” 지적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이 기각된 다음 날인 25일 더불어민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 결정문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힌트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정문 중 ‘적극적 행위’ ‘증거’ 같은

단어가 계엄이 위한-위법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했다는 논리를 폈다.

한 총리 사건에서 계엄 적법성 판단까지 했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도 추론할 수 있었는데, 헌재는 명시적으로 한 대행의 개입 여부만 따지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한 대행 선고문에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부분을 읽을 수 있는 논리적인 내용이 하나 들어

간다”며 결정문 일부를 언급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는 문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적극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계엄에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하면 파면 사유가 됐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계엄은 위한-위법이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논리적 전개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줬다”는 것이다.

의명을 원한 변호사도 “계엄을 합법이라고 생각했다면 한 대행의 묵인·방조 역시 문제 될 것이 없어 헌재가 적극적 행위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며 “그런데도 굳이 적극적이란 단어를 넣은 것으로 봤을 때 계엄이 위헌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하 의견으로 판단 자체

를 안 한 조찬창-정형식 재판관을 빼더라도 최소 6명은 계엄이 위헌이라고 본 셈”이라고 덧붙였다.

‘증거’라는 두 글자 단어가 윤 대통령 파면 근거라고 주장한 의문도 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결정문은 한 대행이 한 행위는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고 이는 계엄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전제했다”고 해석했다. 김준영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HANS WORLDWIDE
 버스가 필요할때?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워싱턴 최초 30인승 밴츠 VIP 리무진 버스

4월5일(토) \$179 선착순30명!

VIP 버스로 즐기는 뉴욕

+ NY허드슨 런치크루즈

3월29일(토)마감! 성원에 감사합니다!

앵콜

8명이상 출발가능

뉴욕 1박2일 4/14 출발확정 \$399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650
4/7, 4/16, 5/19 출발확정

나이아가라, 뉴욕 & 브루클린 3박4일 \$899
4/21, 5/7 출발확정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1,350
4/21 출발가능

당일투어 수시출발 워싱턴 DC \$100
3명이상 출발가능 루레이동굴 \$125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12박13일 8/4(월)-8/16(토)
 \$12,900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알래스카 특식 알래스카 최상품 연어회와 와인 제공
 앵커리지호텔 3박 업그레이드 최고의 가이드
 6박7일 8/13(수)-8/19(화)
 \$3,090 항공포함 인솔자:세라 정



중앙 아시아 3국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탄/카자스탄
 13박14일 9/8(월)-9/21(일)
 \$5,29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서유럽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태리
 10박11일 9/14(일)-9/24(수)
 \$3,590 항공불포함 인솔자:애나 김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9/20(토)-9/28(금)
 \$4,795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동유럽 & 크로아티아, 돌로미티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13박14일 9/30(화)-10/13(일)
 \$4,890 항공불포함 인솔자:애나 김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10/15(수)-10/26(일)
 \$3,690 항공불포함 인솔자:세라 정

Royal Caribbean 마지막 찬스! 얼리버드세일 \$50 off 3/31까지 예약시

9박10일 10/9(토)-10/18(토)
 오션뷰 \$1,495 볼티모어 출발

가을 단풍 크루즈
캐나다 & 뉴잉글랜드
 보스턴(뉴잉글랜드)-세인트존(뉴브런스윅)-시드니(노바스코샤)-할리팩스
 한스가이드 동행/보스턴 시티투어 포함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2025 해외여행

항공 불포함 인솔자

4/9(수)-4/18(금)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체코	남만의 동유럽 9박10일	마감임박	\$3,490	세라 정
4/21(월)-5/2(금)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4/22(화)-5/2(금)			
고국의 봄, 맛과 멋여행 10박11일	4/29(화)-5/9(금)		\$2,990	
서유럽3개국 10박11일	5/4(일)-5/16(금)	마감임박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5/28(수)-6/9(월)		\$3,690	조앤 한
알프스 파노라마 6/3(화)-6/15(일) 아제르바이잔/조지아/아르메니아	6/10(화)-6/19(목)		\$4,390	조앤 한
코카서스3국 12박13일	6/10(화)-6/19(목)			
알프스 하이лай트 9박10일	7/1(화)-7/14(월)	마감임박	\$5,095	재키 조
북유럽+발틱 13박14일	7/12(토)-7/26(토)	마감임박	\$6,595	조앤 한
백두산+서울시티투어+일본북해도 14박15일	7/12(토)-7/15(화)		\$5,990	NEW 재키 조
백두산 천지 관광 딜럭스 3박4일 (연결-도문-이도백하-백두산(서파, 북파), 용정)	7/17(목)-7/25(금)		\$799	NEW 재키 조
북해도의 대자연-신록여행 8박9일 (북해도-삿포로, 니세코, 도야, 후라노)	7/17(목)-7/22(화)	마감임박	\$4,500	NEW 재키 조
캐나다 록키 5박6일	8/1(금)-8/15(금)	마감임박	항공포함 \$2,190	애나 김
아프리카 + 블루 트레인 14박15일 (케냐, 빅토리아폭포, 남아공)	8/7(금)-8/13(수)		\$16,400	조앤 한
아프리카 12박13일	8/4(월)-8/16(토)	마감임박	\$12,900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12박13일	8/7(화)-8/17(월)		\$12,900	
아이슬란드 7박8일	8/7(화)-8/16(토)		\$6,900	재키 조
그린랜드 6박7일	8/13(수)-8/19(화)		\$5,950	
알래스카 6박7일		추천	항공포함 \$3,090	세라 정

고국의맛! 가을 프리미엄고국투어 10/15(수)-10/25(토)

모든 옵션 포함!!

제주포함 전국일주 10박11일 \$2,990 항공 불포함

제주불포함 내륙일주 8박9일 \$2,390 항공 불포함

서울-전주-여수-남해-거제-외도-부산-경주-포항-안동-속초-제주

10박11일 서부4대캐년 5박6일
 일요일 출발 \$990 항공 불포함

10박11일 미서부 일주 8박9일
 일요일 출발 \$1,540 항공 불포함

10박11일 옐로스톤 3박4일 5월19일부터
 매주월,금 출발 \$950 항공 불포함

10박11일 캐나다 록키 4박5일
 \$1,190 항공 불포함

10박11일 알래스카 6박7일
 월요일 출발 \$1,790 항공 불포함

코스타리카 연합투어 2명이상 출발가능
 5박6일 \$1,300 항공 불포함 월요일 출발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재명 오늘 선거법 항소심... 피선거권 판단이 '명운' 가른다

(明·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주목
"김문기와 골프 안착" "국토부 협박" 이 대표, 방송 발언 등이 핵심 쟁점
검찰 공소장 변경이 변수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2월 25일) 이튿날 결심을 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의 속의가 한 달간 이어지면서 2심 선고를 먼저 받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피선거권 10년 제한)을 받았다. 2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각각 10년 또는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방송 출연 발언 중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됐다"고 한 것을 김 전 차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 역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이 대표의 김 전 차장 관련 발언 중 허위인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검찰은 이 부분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대표의 방송사 발언들을 ▶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으로서 김문기를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뒤 선거법으로 기소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3개 유형으로 특정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은 2심에서도 1심도 무죄로 본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유죄 부분도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안 쳤다고 발언

한 사실이 없고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전체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준 것이어서 조작이라고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은 "증언으로 인해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1심에서는 면책 범위를 제한한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이 대표 주장을 배척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을 경우 상고심 재판 속도가 마지막 변수다.

대법원이 "2심 선고일에서 3개월 내"인 선거법 상고심 기간을 준수할 경우 6월 말께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지면 전략을 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현행 허위사실공표죄가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6일 본안을 선고하면서 함께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서민 기자

이재명 무죄 땐 '대세론' 굳히기... 100만원 벌금형 이상 땐 '교체론' 점화

조기대선 땐 선거 지형에 큰 변화이, 윤 탄핵선고 늦어지는게 최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그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은 이 대표에게 탄탄대로일 수도, 구절양장(九折羊腸·구불구불한 산길)일 수도 있다.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일단 후보 자격 논란을 벗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도 인용한다면 이 대표는 유리한 고지에서 조기 대선에 나서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이 해결되면 경선에서 아무도 이 대표를 넘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윤 빠른 선고=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게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이 대표는 후보 자격 논란의 부담 속에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이다.

공직선거 재판 '6·3·3 규정'(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선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탄핵 선고가 다음 달 초까지 나온다면 대선은 6

월 초에 시행되는데, 이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 윤 선고 지연=이 대표에게 최악의 상황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계속 미뤄지는 것이다.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 18일) 직전인 4월 중순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대선 역시 6월 중순 열린다. 범행행적처에 따르면 2023년 공직선거법 확정판결은 2심 후 평균 73.2일 만에 났다. 이

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은 6월 7일(73일째)에 나올 수 있다. 이 대표가 막상 민주당 후보로 뽑히고도 정작 본선에서 중도 탈락하는 시나리오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받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진다면 후보 교체론이 부상할 수 있다. 실제 비명계 원외 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확정판결을 빨리 할지도 모르는데 이 대표가 계속 후보를 유지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퇴직 은행원 남편 대출, 아내가 심사... 이런 부당대출 882억

(기업은행)

건설사서 12억 받고 216억 대출도 금감원 "제보 받은 은행, 은폐 시도"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퇴직 직원이 현직 직원인 부인, 임행 동기 등과 짜고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일으킨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적발했다.

전체 부당대출 규모는 지난 1월 기업은행이 공시한 240억원이 아닌 882억원에 달했다. 25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

의 '이해관계자 등과 부당거래에 관한 최근 검사 사례'를 발표했다.

기업은행에서 14년간 일하다 퇴직한 A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년간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직접 받거나 알선했다. A씨는 회사의 자금을 허위로 부풀려 돈을 빌린 뒤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기업은행 현직 심사역인 A씨의 부인과 은행 지점장은 이런 사실들을 알

고도 대출을 승인했다. A씨는 건물에 미분양이 발생하자, 고위 임원에게 청탁해 기업은행 점포를 입점시킨 후 이를 매각하기도 했다. 해당 임원은 A씨에게 골프 접대와 6700만원을 받고, 내부 반대에도 점포 입점을 밀어붙였다.

A씨는 건설사 청탁도 받아 216억원의 부당대출을 알선하고, 12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임행 동기인 심사센터장 D씨와 지점장 3명이 대출을 승인해줬다.

A씨는 D씨에게 현금 2억원과 자신의 차명법인 지분 20%를 대가로 제공했다. A씨가 사모임 5개에 참여하면서, 팔리된 골프 접대를 한 임직원만 23명에 이른다.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8명에겐 15억 7000만원의 현금도 줬다. 기업은행의 지난 2월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17.8%(95억원)가 돌려받기 힘든 부실대출로 잡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부실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부당대출 정황을 제보받고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사 기간 기업은행 직원이 271개 파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방해도 있었다. 이 수석부원장은 "굉장히 심각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금감원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준 기자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그의 30여년 더 있음

주소	기간	세입자
페어팩스 지역 봄-여름 나을 집 렌트 리스딩 50여채 있음	4/1-7/31 일주 가능함집	\$1,800-\$5,200 가격대 렌트 집 리스딩.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올 여름에 파견 나올 주재원 6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6월 말- 8월 초 일주 희망	\$2,000 - \$5,500 가격대 렌트
3618 Cantrell, Fairfax, VA	2년	크레딧 좋은 Non Korean 가족
6406 Hawk View Ln, Alexandria, VA	2년	크레딧 좋은 Non Korean 가족
9411 Myra Dr, Great Falls, VA	3년	비교적 덜 좋은 조건이지만, 주인측 에이전트와 오랜 거래 덕분에 수 많은 경쟁 신청자 불고됨. 주인 및 에이전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로리 손님 뽑았다고 할 역시 부동산사도 사람이 하는 일. 주재원
4658 Braddock Green Ct, Fairfax, VA	3년	3번째 신청자지만, 오랜 노하우로 특별. 주재원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마켓에 내놓지 않고 명성으로 보우주고 계약 완료. 국제가
1042 Warbler Place, McLean, VA 2/14/2025 입주	3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다음 세입자 바로 연결. 한국에서 명성보고 3년 렌트함. 주재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계약은 이곳에서

2024 **A** Return

T X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안전한 곳 없다, 안동·청송·영덕 전주민 대피령

대피령 뒤 진입차량과 뒤엉켜 혼란 국도에 연기 뒤덮여 추돌 사고도 1분에 7.5만L 물 쏘는 장비도 배치



25일 경북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야산이 불타고 있다. 지난 22일 의성군에서 시작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접한 안동시와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거센 바람이 풀무질을 하면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25일 다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산불이 안동시, 청송·영양·영덕군으로 퍼졌다. 안동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도 산불 위험지대에 들어갔다. 청송군과 영덕군은 전 군민 대피령을 내렸다. 영양군도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경남 산청·하동군과 울산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청송군에서 60대 여성이 화재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5명을 포함해 16명으로 늘어났다. 닷새째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높였다.

이날 산림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경북 의성군 지역 주불을 잡기 위해 진화

헬기 77대, 인력 3708명, 진화장비 530대를 동원해 산불 진화에 주력했다. 전날 70%선을 오르내리던 산불 진화율은 이날 오후 60%선으로 뒷걸음질했다. 소방청도 이날 오후 의성군 산불에 소방 대응태세를 3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전국 특수구조대 9개를 경북 지역으로 출동 조치했다.

산불이 잡히기는커녕 확산하면서 금성·가음·사곡면 등 의성군 곳곳에 주민 대피 문자가 울렸다. 주택 26채, 창고 33동, 공장 1동 등 101개 건물이 피해를 보았고, 1552명의 의성군 주민이 대피한 상황이다. 의성군 서북지역 안사면 사무소는 일부가 소실됐다. 천년 고찰인 대한불교 조계종 고운사도 불탔다.

의성군에서 시작한 불길은 인접한 안동시 길안면·풍천면으로 번졌고, 청송군 경계선까지 넘어선 상황이다. 산림당국은 하회마을이 산불 위험권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에게 인근에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로 대피준비 명령을

내렸다.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한 주소 건물은 불이 번져 소실됐고,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마을도 거센 산불에 휩싸였다. 안동시에서 대피소로 피신한 이영희(65)씨는 “집 뒤까지 불길이 왔다. 40년 넘게 안동에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지독한 산불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피령이 내려지자 안동시에서 차량이 대거 빠져나가는 상황 때 안동으로 진입하던 차량과 뒤엉키면서 일부 도로에선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국도를 장악한 연기가 수십km 구간을 잠식하면서 운전 시야가 좁아진 차량간 추돌사고도 발생했다.

소방청은 하회마을을 산불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배치했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1분에 최대 7만5000L의 물을 방사할 수 있는 특수장비다. 청송군도 같은 날 저녁 6시쯤 전 군민 대피령을 내렸다. 청송군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전 군민은 산불과 멀리 떨어져 안전한 곳으로 대

피하길 바란다”고 알렸다. 청송군 산불은 주왕산국립공원 방향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산불이 청송군까지 번지자 법무부 교정본부는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와 안동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3500여 명을 인근 교도소로 대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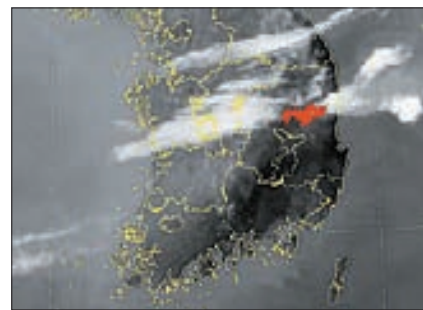
산불 진화작업을 마무리하던 다른 지역도 강한 바람 때문에 오히려 불씨가 되살아나는 상황이다. 앞서 산불이 발생했던 울산시 울주군은 25일까지 진화율이 96%를 기록했지만, 20km 떨어진 화장산 일원에서 다시 산불이 나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오후 한때 90%에 도달한 경남 산청군 산불 진화율은 오후 6시 기준 87%로 떨어졌다. 불길이 지리산국립공원 방면으로 번지자 산청군은 오후 5시쯤 시천면 신촌·보안마을을 관광객 및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건 25일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날씨가 덥

고 건조한 데다 강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다. 안동 하회에서는 이날 최대 순간풍속 27.6m(시속 99km)의 태풍급 바람이 불었다. 강풍을 타고 불씨가 광범위하게 퍼지며 산불도 급속도로 번지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 4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높였다. 심각 경보는 대형 산불이나 동시다발적 산불 등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한다. 심각 단계가 내려진 지역엔 소속 공무원의 4분의 1 이상과 공익근무요원 절반 이상을 배치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소방청·국방부 등과 협조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인력을 동원해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라”며 긴급 지시했다.

김정석 기자



경북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25일 기상청 천리안 2A호 위성에 포착됐다. 붉은 영역이 산불이 탐지된 지역이다. [사진 기상청]

‘1300년 고찰’ 고운사 전소, 세계유산 병산서원도 초비상

(의상대사 창건)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의성군 단촌면 등운산 자락의 ‘천년 고찰’ 고운사를 삼켰다. 신라 신문왕 1년(서기 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운사는 일주문이 전국 사찰 가운데 손에 꼽힐 정도로 아름다우며 건축물인 가운루와 연수전이 각각 국가지정유산 보물이다.

산림 당국은 25일 이날 오후 4시50분쯤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산불에 완전히 소실됐다고 밝혔다. 사찰 경내에 있던 스님과 신도들은 전각에 불길이 옮겨붙기 직전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고운사 도련 스님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소방청으로부터 전각이다

불탔다고 들었다”면서 “보물인 석조여래좌상은 스님과 신도들이 대피시켰다”고 전했다. 9세기로 추정되는 석조여래좌상은 몸체와 광배(머리 뒤를 둥글게 감싸는 조형물)는 인근의 안동 청소년문화센터로 옮겨졌지만 받침대인 대좌는 이송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탄 것으로 추정되는 전각 중 하나인 가운루는 1668년에 창건됐다. 계곡에 가로질러 설치된 독특한 사찰 누각으로서 조선 중·후기 양식이 잘 살아 있다고 평가됐다. 연수전은 조선 왕실 기념 건축물로서 원형이 잘 보존됐고 특히 단청과 벽화가 빼어났다.

이날 의성군 산불이 안동군으로 번지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풍천면



25일 경북 의성 고운사 입구의 최치원 문헌관이 불타고 있다.

하회마을 등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오후 4시55분쯤 하회마을을 주민에게 제

난 대피 문자가 발송된 가운데 불길은 오후 6시쯤 마을과 직선거리로 8km가량 떨어진 곳까지 이르렀다. 풍산 류씨의 씨족마을인 하회마을은 전체가 국가민속문화유산에 올라 있고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2019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풍천면 병산서원도 긴장 상태다. 병산서원에는 보물 만대루가 포함돼 있다. 풍천면 일대엔 소방차 10대가 긴급 투입됐으며 안동시 측은 소방호스 등을 동원해 주요 시설물에 물을 뿌리면서 화재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국보·보물 8건이 집적된 안동군 봉정사는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한 유물 긴급이송에 돌입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꼽히는 봉정사 극락전(국보)을 비롯해 대웅전(국보)·고금당(보물)·화엄강당(보물) 등 건축물을 제외하고 주요 탕화와 불상을 국립경주 문화유산연구소로 옮기는 조치다.

한편 이날 안동군 길안면으로 번진 산불로 인해 16세기 초 목조 정자인 만휴정과 일대 원림이 불탄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진 이곳은 국가지정유산 명승이다. 안동시는 만휴정과 용담사, 목계서원에 소방차와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이날 오후 4시 불이 만휴정 뒤쪽을 덮치자 인력을 철수시켰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후 5시30분 국가유산 재난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으로 발령했다.

강혜란 문화선임기자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3월 HOT 리스팅

매매

- 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
- 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분 방4+ 화장실3.5, 렌트 수익 \$2,900
- 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분 방3+ 화장실2.5, 렌트 수익 \$3,000
- 스태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분 방3+ 화장실3.5
-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분 방3+ 화장실3.5, 호수부, 차고 2, 렌트 \$3,600

렌트

- 애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
- 애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3+ 화장실3, 차고 2, 입주 6월
- 첸틸리 타운하우스 \$3,400 방3+ 화장실3.5, 차고 2, 입주 4월초
- 우드브리지 \$3,200 방3+ 화장실3.5, 차고 2, 입주 3월초
- 맥클린 로튼다 콘도 방2+ 화장실 2, 즉시 입주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희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학무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703-259-5617, 410-241-2520

차량 총동원 재소자 밤샘 대이동...성덕댐, 방류량 3배 늘려

법무부 "구체적 이송 장소 비공개" "담 하루에 하루 10만톤 추가 방류"

경북 의성군 산불이 25일 청송군까지 번지자 법무부가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와 안동교도소 재소자 3500여 명을 인근 지역 교정기관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8시48분쯤 "안동, 청송 등 경북북부 지역 산불 확산과 관련해 해당 지역 교정기관 재소자 이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북부 제1~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2700여 명과 안동교도소에 수감된 800여 명이 이송 대상자다. 법무부는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장소는 비공개"라고 말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교

도소 인근까지 산불이 번진 상태다. 동원 가능한 모든 차량과 버스를 통해 밤사이 대피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송 과정 중 재소자들의 탈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정된 보호장비를 착용해 이송 중으로, 도주 위험성은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이날 오후 5시44분쯤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산불이 확산함에 따라 전 군민은 산불과 멀리 떨어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길 바란다"고 알렸다. 청송군은 앞서 불이 군 경계인 5~6km까지 접근하자 청송국민체육센터 등 총 23곳에 대피소를 마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 대피용 대형 버스 3대를 군청에 대기시켰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흉악범 전담 시설로 지정해 흉악 범죄자들을 이감했다. 이들 중에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수송자를 태운 법무부 버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는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로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전주환이 포함됐다. 경북북부 제2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중경비 교도소로 과거부터 조직폭력배 김태춘과 조양은, 탈옥수 신

창원,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 등을 수감했다. 교정 당국은 개인 맞춤형 상담, 집단 프로그램, 사후관리 상담 등을 통해 범죄 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 이들을 모았다.

산불은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동해안 영덕군까지 번졌다. 이날 오후 불길이 주왕산을 향하자 공원 경내 사찰인 대전사 측은 문화재를 긴급 이송했다. 주왕산국립공원 사무소 직원들도 대피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바람 방향 때문에 주왕산으로 불길이 번졌고, 당초 걱정하던 지리산은 바람 방향과 반대쪽에 있어 아직 괜찮은 상황"이라면서도 "산불 지역에 인접한 국립공원이 많아 공원의 산불 진압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가 진 뒤에는 헬기를

띄울 수 없는데, 바람을 타고 밤새 산불이 국립공원에 번질 것으로 보여 애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청송군 성덕댐의 방류량을 세 배 늘리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성덕댐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초당 1.6t의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담 하루 길 안전에 하루 10만t을 추가 방류해 화재 진압 용수를 공급하고, 산불 차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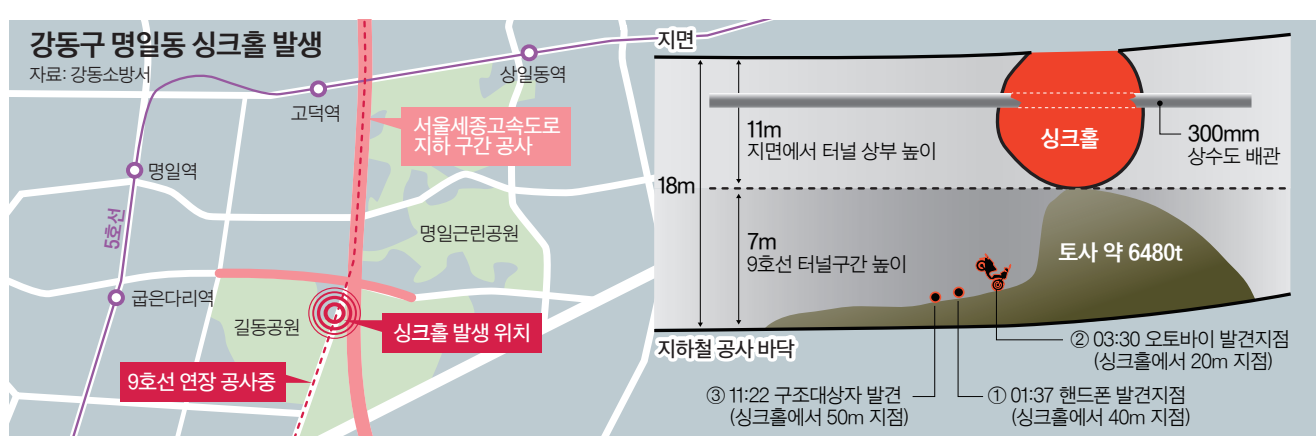
산불은 청송을 지나 동진하면서 동해에 인접한 영덕군 일부까지 번졌다. 영덕군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지품면, 달산면, 영해면, 창수면 주민 1000여 명에게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지품면 소재지 일대는 단전까지 된 상태다. 양수민·정은혜 기자

장마철도 아닌데 '싱크홀 참변'... 18시간 만에 매몰 운전자 숨진 채 발견

(오토바이)

서울 강동구 대명초교 사거리 근처 도로 한복판에서 24일 발생한 지름과 깊이 각 20m 싱크홀(땅꺼짐)에 매몰됐던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33)씨가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사고가 난 지 약 18시간 만인 이날 낮 12시36분 박씨를 수습했다. 박씨는 싱크홀 내에서 헬멧을 쓰고 바이크 장화를 착용한 상태로 발견됐다.

박씨의 30년 지기인 김모(33)씨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아버지를 사고로 잃은 뒤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 광고업에 종사했던 그는 낮에는 프리랜서 직원으로 회사에 다니고, 퇴근 뒤 배달일을 부업으로 했다. 김씨는 "(박씨가) 일주일 내내 일만 해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유명했다"며 "사는 게 바쁘다고 연락을 자주 못 하고 산 게 그저 미안할 뿐"이라고 말했다. 장례식장을 찾은 박씨의 직장 동료 A씨는 "오후 5시에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전 2시까지 라이터 일을 한



뒤 다시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며 안타까워했다. 강동구에 마련된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은 "반은 것밖에 없는데...우리 얘기 어떡해"라며 오열했다.

싱크홀은 전날 오후 6시29분쯤 갑자기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1명도 부상을 당했다. 소방은 싱크홀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25일 오전 10시40분부터 인

근 주유소 지하 기름탱크에서 기름을 모두 빼내는 작업을 병행했다.

이번 싱크홀은 지난해 8월 장마철에 발생한 연희동 싱크홀과 달리 초봄에 발생했다. 지반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집중호우와 폭염이 없었던 만큼 계절적 요인보다는 상·하수도나 가스, 통신 등 지하 매설물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 교수는 "이

번 사건은 2014년 석촌호수 싱크홀 사건과 상당히 닮았다"고 짚었다. 그는 "인근에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됐다는 점, 토양이 단단한 암반이 아닌 가는 모래가 쌓인 충적층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며 "당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으로 공사 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싱크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소방 당국은 싱크홀 중심부가 지하철 공사장 입구에서 약 80m 떨어진 곳에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공사장 관리 책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사 과정 중 (땅꺼짐) 조짐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며 "(사건 수습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이재혁 서울도시개발시설본부 토목부장은 "지하철 공사와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고려하고 있다"며 "정밀 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잠실 석촌호수 지하차도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2016년 지하안전법을 만들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5년마다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반 침하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총 957건으로, 이들에 한 번꼴이다. 오소영 기자

내년 예산 700조 넘을 듯... 정부 "복지·의료지출 효율화를"

2026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의무지출 부문의 쓰임새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방향 등을 담

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 편성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7년 처음 400조원을 넘어섰던 정부 예산은 2020년 500조원대, 2022년 600조원대에 각각 진입했다. 2016년(386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0

년 만에 나라 살림 규모가 두 배 가까이로 불어나는 셈이다.

내년 예산은 통상 갈등 대응책 마련,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시급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청년·고령층 등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

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한다.

올해 지출에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부각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지침에서 "인구조조 변화를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 개편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지출'은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복지·의료관련 예산, 지방이전 재원, 이자지출 같은 기타의무지출을 포괄한다.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다르다. 재량지출은 올해 308조원에서 2028년 323조원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원에서 2028년 433조원으로 급증한다. 일단 정부는 내년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4년 연속 지출 구조조정이다. 세종·왕원석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김영선
연방세무사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의대생 제적 위기... 의협 “시간 더 달라” 정부에 요청 검토

(의대생 복귀시한)

40개 의대 복귀 데드라인 압박하자 ‘1~2주 연장요청’ 뒤늦게 의견 모아 일각 “집행부, 투쟁도 대화도 안해”

전국 40개 의대가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압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대학에 “의대생들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의협 관계자는 “의대생 제적 처리까지 1~2주 만이라도 시간을 더 달라고 정부와 대학에 요청하려고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 피해가 눈앞에 보이는데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 의협 집행부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복귀 시 24·25학번 교육 대책을 내놨다. “학생 복귀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대학 총장·의대 학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각 의대는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학칙대로 처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내용대로는 (24·25학번)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며, 복귀 여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의협 입장의 변화가 생긴 건 연세대·고려대 등이 미등록 학생에게 제적 예

정 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제적·유급 사태가 현실화하면서다. 시한이 다가오면서 의료계 전반뿐 아니라 의협 내부에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투쟁도, 대화도 아무것도 안하고, 학생들만 피 흘리게 한다”며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협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서 피해를 극대화하고 있다.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로”라며 김택우 의협회장과 집행부를 공개 비판했다. 강석훈 강원대 의대 교수는 지난 24일 의협 주최 포럼에서 “어른들이 책임져야 하지, 왜 무고한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투쟁은 교수가 할 테니 학생들은 이제 돌아와 실리를 쟁길 때”라

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라 말해야 할 때라는 의료계 내부 지적에 대해 ‘의협이 한마디 해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간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한다’며 “그런 주장은 학생들의 의사 결정 구조를 무시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학생들은 어린이가 아니다”며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스스로의 인생을 위해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의협은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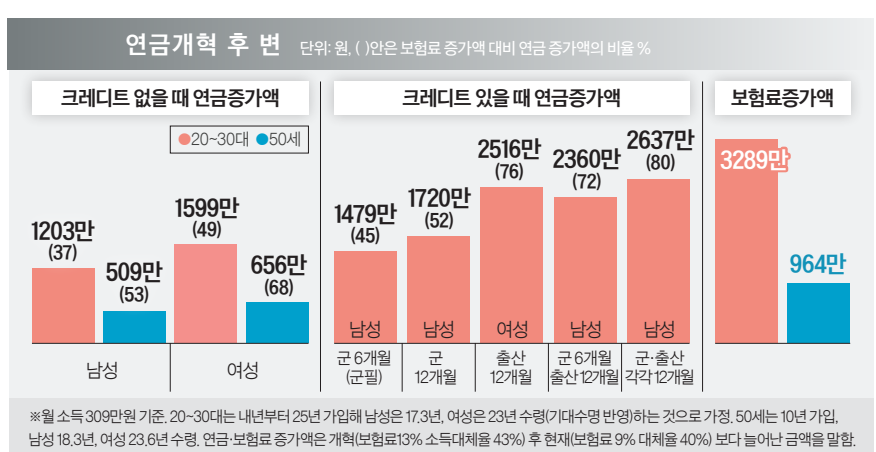
반면에 대학 측은 ‘데드라인 연장’에 난색을 표했다. 의대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회장인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이번 기회는 의총협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를 설득해 어렵게 이끌어냈다. 앞서 마지막 기회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대생과 학부모님이 총장님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며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예스더·박태인 기자

연금개혁, 청년이 손해? 크레딧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0, 40대 국회의원과 일부 중진 의원이 “젊은 층에 부담 준다” “젊은 층에 독박”이라고 비판하면서 ‘젊은 층 손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어떨지 월 소득 309만원인 20~30대와 50세의 연금·보험료 증가를 비교했다. 분석 방법은 전문가에게 자문했다.

20~30대는 25년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들이 연금을 수령하는 2050, 2060년 기준 신규 연금 수령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약 25년(제5차 재정제세 산 자료)인 점을 고려했다. 50대는 10년으로 잡았다. 또 통계청 생명표(기대여명)를 토대로 65세부터 연금 받는 기간을 잡았다. 20~30대 남성은 17.3년, 여성은 23년 수령한다. 50세는 남성 18.3년, 여성 23.6년이다. 이렇게 하면 20~30대 남성은 노후 연



금이 1억6037만원에서 1억7240만원으로 1203만원 늘어난다. 여성은 2억1321만원에서 2억2920만원으로 1599만원 늘어난다. 보험료는 3289만원 증가한다. 보험료 증가 대비 연금 증가 비율(이하 연금 비율)이 남성은 37%(1203만원/3289만원), 여성은 49%다.

50세 남성은 연금이 509만원, 여성은 656만원 증가한다. 보험료는 964만원 증가한다. 연금 비율(이하 연금 비율)이 남성 53%, 여성 68%다. 두 세대를 비교하면 20~30대의 손해가 명확하다. 이번 개혁에 따라 보험료는 내년부터 8년에 걸쳐 매년 0.5%p 올

라 2033년 13%(올해 9%)가 된다. 여기까지 두 세대는 같다. 그러나 13%의 보험료를 내는 구간이 20~30대는 18년, 50세는 3년이다. 젊은 층 부담이 훨씬 크다. 물론 내년에 소득대체율이 43%로 바로 올라 젊은 층이 43%의 혜택을 더 길게 보긴 하지만, 보험료 증가를 능가하지 못한다. 그러나 크레딧(가입기간 추가)을 포함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군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고, 첫째아 출산 크레딧(12개월)도 도입된다. 이들은 소득대체율을 1.48%p 끌어올려 연금액을 늘린다. 크레딧을 넣으면 20~30대의 연금 비율이 50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진다. 2008년 이후 군에 갔다 온 20~30대는 6개월, 내년 1월 이후 제대하면 12개월이다. 군필 남성의 ‘연금 비율’은 45%

다. 50세 남성보다 다소 낮다. 내년 이후 제대하면 50세와 비슷하다. 여기에 출산 크레딧을 더하면 꽤 올라간다. ‘군 6개월, 출산 12개월’ 크레딧을 받는 남성의 연금 비율은 72%, 군·출산 모두 받은 남성은 80%다. 50세 남녀보다 상당히 높다. 군 크레딧은 남성만 받지만, 출산은 부부 합의로 남성이 다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출산 크레딧 수령자는 5981명이며, 이 중 98%가 남성이었다. 출산 크레딧은 연금 수급권(최소 10년 가입)이 있어야 받는데, 수급권 없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출산 크레딧을 여성이 받을 경우 연금 비율은 76%다. 50세 여성(68%)보다 높다. 다만 크게 보면 ‘젊은 층이 손해’라는 프레임이 맞다. 중장년층이 소득대체율 호시절(45~70%)을 거쳐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았으면 미래 부채를 더 줄였을 것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시럽급여’ 소리 안 나오게... “2주마다 구직활동 증명하라”

단기 계약직을 반복 입·퇴사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반복수급자’가 많아지자 고용노동부가 단속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개정 지침을 지난 24일 공개하고, 31일부터 일선 고용센터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엄격한 대면 관리를 받게 된다. 수급 기간 동안 여러 차수에 나눠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반복수급자는 매번 고용

센터에 대면 출석해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업인정이라 입사지원서 제출, 취업 관련 강의 수강, 면접 참여 등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1·4회 차에만 고용센터로 대면 출석하면 됐다. 실업인정 주기도 1~3회 차의 경우 4주에서 2주로 줄어든다. 즉 반복수급자의 경우 2주에 한 번씩 대면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2차 때는 재취업활동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전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은 2020년 11조8556억원에서 지난해 11조7405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러나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은 같은 기간 4800억원에서 5804억원으로 늘었다. 반복수급자 숫자도 같은 기간 9만3000명에서 11만3000명으로 20%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92만5760원인데,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8시간 일했을 때 세금과 4대보험을 제하고 난 실수령 월급 187만4490원보다 많다. 세종=김연주 기자



남태령 트랙터 시위, 퇴근길 정체 극심 25일 서울 남태령역 부근에서 농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농민들은 트랙터와 트럭을 몰고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트랙 20대만 진입을 허가해 트랙터 행진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며 퇴근길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정진영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헬렌 서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 NVAR Top Producer
- ▶ Zillow Premier Agent
-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웃브리지 타운홈 페어팩스 타운홈

\$1.2 M

Comer Lot
Many Upgraded

\$495,000

방3, 화3.5
Lake Ridge 커뮤니티

\$3,600

방4, 화3.5, 조지메이슨대학 근처
Very Good 컨디션

COMING SOON 리스팅

굿 로케이션 집 수리중입니다.

* Annandale 싱글홈 \$890,000
** Springfield 싱글홈 \$800,000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특점 Annandale 콘도

완전 리모델링된
환하고 밝은 예쁜 콘도, 나무마루,
새롭게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H Mart 가까움

\$210,000



Contract

특점 Stafford 단독주택

2011년에 지은 집, 2022년에 업그레이드,
방 5, 화 5, 차고 2, 뒷층에 Full Bath 3개,
최고급 자재로 업그레이드 한 밝고 넓은 집,
새 단지 새 동네, Walkout Basement, Fully Fenced Backyard

\$719,900



특점 Lorton 타운홈 렌트

엔드 유닛, 2 Car Garage,
최고로 업데이트된 럭셔리 홈, 전체 나무 마루,
탁 트인 부엌, 넓은 DECK, 방4, 화3 1/2

\$3,600



Contract

특점 Annandale 타운홈

엔드 유닛, 2 Car Garage, 업데이트된 예쁜 타운홈,
리모델링한 부엌, 집 전체 나무마루, 밝고 환한 집,
Large Deck, 교통 편리

\$710,000



Sol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우리말 바꾸기

복권 '맞히기'와 '맞추기'

최근 '메가밀리언스'의 최고 금액 당첨자가 나와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다. 잭팟은 무려 12억 달러다. 이번 복권의 당첨 확률은 3억250만분의 1이었다고 한다.

메가밀리언스는 1~70 사이 숫자 중 5개와 1~25까지 메가볼 번호 1개 등 6개 번호를 정확하게 선택한 사람이 1등 당첨금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 6개의 숫자를 '맞힌다'고 해야 할까, '맞춘다'고 해야 할까.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고 골라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복권의 숫자를 맞혔다"고 하면 적어 낸 숫자가 당첨번호에 적중했다는 의미가 된다.

'맞춘다'는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살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복권의 숫자를 맞혔다"고 하면 "내가 써 낸 숫자를 당첨 번호와 비교해 보았다"는 의미가 된다. "당첨 번호가 발표됐으니 얼른 복권과 맞추어 보자"와 같이 쓸 수 있다.

따라서 '맞히다'와 '맞춘다'는 둘 중 하나가 틀린 말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정확하게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내가 내는 문제를 한번 알아맞춰 보아라"에서와 같이 '알아맞히다'와 '알아맞추다'가 헷갈리기도 한다. 이 또한 정답을 골라내는 일이므로 '알아맞히다'고 해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시의회 발언대의 막말, 이젠 막아야 한다



최인성
사회부 부국장

내 귀를 의심했다. 분명히 길거리 주먹 싸움에서 나 들던 말이었나 그렇다.

10여 년 전 처음으로 LA 시의회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400만 시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정치의 중심지라고 하기엔 그 모습은 지나치게 과격하고 때로는 무기력해 보였다.

LA 시의회 본회의장은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발언 기회를 제공한다. 시의회의 결정과 발언에 대한 찬반 의견을 누구든 공개적으로 개진할 수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일 것이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때로 혹독하다. 시의회 발언대에 선 일부 시민들은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남루한 차림의 이른바 '상습 욕설자들'은 의회가 열리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방청석을 차지한다. 그리고는 시종일관 귀에 거슬리는 표현들을 동원해 특정 정치인들과 시의회를 싸잡아 조롱하고 괴롭히는 데 여념이 없다. 그 괴롭힘의 수위는 심각하다. 만약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길거리에서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공개적으로 듣는다면, 주먹을 쥐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다. '똥똥하다', '천박하다', 심지어 '성매매 여성'이라는 발언은 물론, 노골적인 성적 묘사를 담은 표현까지 서슴없이 사용된다. 피부색을 이용한 인종적 멸시는 이제 놀랍지도 않은 '단골 메뉴'가 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원들과 주변 보좌관, 심지어 경찰관들조차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유 발언에 제

대로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은 차치하더라도, 혐오 발언에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실로 놀라웠다. 나중에 만난 보좌관과 의원들은 이러한 광경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LA 시의회 내 발언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은 없다. 간혹 고성을 지르거나, 논의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의 장이나 시 검사가 발언을 제지하는 정도에 그친다. 사실상 대부분의 혐오 발언은 여과 없이 방청석을 통해 의회 내부로 전달된다.

마쿠스 해리스-도슨 LA 시의장과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직접 질문했다. 이처럼 과격하고 무례한 발언과 표현들이 시의회 공식 석상에서 허용되는 것이 '헌법적 권리' 보호라는 명목하에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그는 "발언권과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들과 달리,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자유 발언 기회가 정부 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이자 시간일 수 있다"면서 "단순히 욕설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발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하에 인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물론 그의 말에는 알리가 있다. 때로는 '이유 있는 분노'가 욕설이라는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다. 시민이자 납세자로서 부당함에 항의하고 울분을

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권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LA 시의회의 상황은 이러한 허용이 사실상 방종을 조장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는 스스로 정화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에 맞서, 마침내 시의회 여성 의원들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혐오 표현을 퇴출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7명의 시의원은 지난주 흑인 비하 표현(N-word)과 여성 비하 표현(C-word)을 명시하고, 이를 포함한 성적, 인종적 멸시 및 비하 발언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언대의 내용은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발언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될 경우 해당 시의회 회기에 3일 동안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물론 이 조치가 시민의 참여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명백한 혐오 표현으로부터 시의회 구성원들과 정상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도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선출된 시의원들과 수많은 보좌관들이 정당한 비판이 아닌, 길거리 싸움꾼들이 주고받는 수준의 저열한 언어로 고통 받는다면, 이 또한 명백한 폭력과 다르지 않다. 시의원들의 가족들이 회의를 방청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면 그 고통은 더욱 극명하게 와닿을 것이다.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시의회 여성 의원들의 용기 있는 움직임이 LA 시의회 방청석을 조금 더 건전하고 품격 있는 공론의 장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네트워크

일본이 요즘 야구를 너무 잘하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상품권 스캔들'로 궁지에 몰렸던 지난 14일, 오전 관저 도어스태핑에서 "조선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것은 정치적 활동으로서의 기부가 아니다"라며 '내 돈 내 산' 선물임을 강조하던 그는 잠시 후 관저를 예방한 LA다저스 사사키 로키로부터 사인이 담긴 모자를 건네받아 쓰곤 환하게 웃었다.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연일 일본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총리가 예방을 받는 장면은 위화감이 느껴졌다. '갑자기 취소할 수 없었겠다' 싶지만, 한국이었다면 "지금이라도 그러고 있을 때인가!" 비난 세례가 쏟아졌을 것이다. 이시바 총리가 자신도 비판했을 법한 일을 저질러 놓고 여태 그렇게들 해왔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렸으니 도덕성에도 타격이 가해져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원석
도쿄 특파원

다저스 예방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시바 총리에겐 다행일 수도 있다. 일본 국민은 LA 다저스를 마치 자신들의 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오타니 선수가 버티고 있는 데다 일본 최고의 투수라는 야마모토는 오타니와 함께 입단 첫해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가져갔다. 차세대 일본 에이스라는 사사키마저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다. 만약 오타니가 본업인 '이도류'로 복귀해 마운드에 선다면 다저스의 선발

라인업에 일본 투수가 3명이나 포함된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다저스가 도쿄를 방문해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펼치니, 도쿄 곳곳에서 경기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한신 타이거스를 상대로 한 친선경기에서 오타니는 팬들 기대에 보답하듯 투런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스타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18일 열린 메이저리그 도쿄시리즈 개막전에서 맞붙는 시카고 컵스와 LA다저스는 양팀 합쳐 일본 선수가 5명이다. 개막전 티켓은 한화 100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암표까지 등장해 기승을 부린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시바가 자민당 초선의원들의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해 건넸다는 10만 엔 백화점 상품권은 아무래도 타격감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MD 지이언트 No. 1 에이전트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내가 미치고 있나요?” ... “엄마는 가짜”라던 소년의 18년

안혜리의 인생

본설위원



정해진 치료법도, 완치도 없는 병에 걸렸다. 빈발하는 증상과 일상을 방해할 정도로 독한 약물 부작용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엄청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닥뜨려야 한다. 형벌 같은 환경에서 환자와 가족이 감내해야 할 중압감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조차 어렵다. 하물며 성인도 아니고 다정하고 똑똑했던 열두 살 소년에게 갑작스럽게 이 병이 찾아왔다.

조현병 애기다. 인구 100명당 1명의 발병률, 다시 말해 암만큼 흔한 병인데도 좀처럼 주변에서 만나기 어려운 건 조현병을 범죄와 동일시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낙인 탓이 크다. 복지부 정신질환 실태조사가 잘 보여주듯, 조현병 환자는 공격적이고 난폭한 데다 (78%) 범죄 저지를 확률이 높아(72%), 열에 열네곱은 치료 경험 있는 사람과 친구나 이웃 주민으로 살 수 없다고 답했으니 말이다.

치료만 받으면 일반인 범죄율과 다르지 않은데도 강남역 살인 사건(2016)이나 진주 방화 살인 사건(2019)처럼 범행 자체보다 조현병 앓던 범인의 병력에 더 주목하는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조현병 환자 가족은 더 움츠러든다. 대중의 조현병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주홍글씨는 더 짙어져 사회에서 배척당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니까. 그래서 모두들 숨는다.

그런데 여기 조현병과 함께 살아온 지난 18년을 담담히 털어놓은 사람이 있다. 책 『내 아이는 조각난 세계를 삽니다』를 내고 아들 병을 세상에 커밍아웃한 엄마 윤서(필명)씨와 아들 나무(29·가명)씨다. 얼굴은 드러냈지만 본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환자와 환자 엄마라는 정체성 대신 작가와 평범한 청년이라는 또 다른 정체성으로 세상과 대면하고 싶어서다.

일반적인 조현병보다 더 드물다는 인구 1만 명 중 1명꼴인 소아 조현병 걸린 아들을 잘 키워낸 윤서 작가를 지난 10일 만났다.

한때 죽고 싶었던 적도 있지만 이젠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에게 ‘살자, 아니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용기를 냈다고 했다. 윤서 작가 시각에

서 그의 인생을 정리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병과의 동거

폭풍·폭탄이라는 표현 정도로는 답을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이었다. 2008년 아무 전조 증상 없이 아들에게 급성 조현병이 왔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온 집 커튼을 다 치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 최면술로 치료한다는 의사, 한약으로 독소 빼는 한의사까지 만났지만,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시어머니는 “귀신 들렸다”며 굿할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부 잘하고 독서와 축구 좋아하던 아들 상태는 분명 심각했지만, 난 그저 성장 과정에서 뇌가 잠시 영긴 거라 생각했다.

아니었다. 대학병원 소아 정신병원 개방 병동에 입원해 검사하는 중에도 환청과 망상은 더 심해졌다. 아이가 물었다. “엄마, 내가 미치고 있는 건가요?” 결국 발병 두 달 만에 폐쇄 병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6개월에 걸친 전문의 관찰 끝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조현병과의 동거가 이렇게 시작됐다.

단계별로 방사선치료나 항암, 수술을 받는 암 환자와 달리 조현병은 정해진 치료법이 없다. 환자마다 양상이나 약물 반응이 천차만별이라 초기일수록 맞는 약물 찾는 게 중요하다. 나무는 치료제 찾기까지 3년6개월 동안 입·퇴원을 12번 반복했다. 지난 18년 중 가장 고통스런 기간이었다.

맞는 약도 적용하려면 6주 이상 걸리는데, 맞지 않는 약은 망상과 환청을 일부 줄여주긴 하지만 부작용이 더 심하다. 몸은 팽속으로 꺼질듯 무겁고 잠이 쏟아진다. 야뇨도 있다. 끝없는 돌봄에 엄마도 지치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감내하긴 더 어렵다.

한 번은 아이가 약 안 먹겠다고 떼를 썼다. “엄마가 먹어 봐, 얼마나 힘든지.” 그 말에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벌였다. 떨컹 아이 약 중 한두 알을 삼켰다. 도저히 못 일어나 2-3일을 누워만 있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가족은 약을 ‘비타민’이라고 부르면서 아이의 약 거부감을 줄여나갔다. 많을 땀 하루 16알씩 먹다 이젠 6알로 줄었는데, 아이가 약 먹을 때마다 난 진짜 비타민을 삼킨다.

이런 일도 있었다. 적잖은 다른 조현병 환자처럼 나무도 처음엔 가까운 사람이 가짜라고 느껴지는 카그라스 증후군을 보였다. 1시간 전까지 멀쩡히 대화하다가 갑자기 “가짜 엄마”라면서 폭

갑자기 찾아온 아들의 조현병 죽지 못해 살던 엄마는 식발까지 ‘조각난 세계’에서 살아남은 건 타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



소아 조현병 아들을 둔 윤서 작가를 지난 10일 만났다. 죽고 싶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젠 웃을 수 있다고 했다. 김종호 기자

력적으로 돌변하면, 두 학년 아래 여동생은 엄마 위험할까 봐 경찰에 신고하고는 “도와달라”며 뛰쳐나갔다. 매일이 전쟁이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정신질환을 흔히 마음의 병이라고 한다. 조현병은 아니다. 뇌의 병이다. 뇌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인지라 조현병 역시 낱설고, 정신질환 중 가장 치료가 어렵다.

진단 직후 의사는 “뇌가 골절한 것”이라며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 먹듯 조현병약을 평생 먹는다고 생각하라”고만 했다. 18년을 겪은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정말 막막했다. 환자와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침은커녕 기본적인 의료 정보 담은 책 한 권 찾을 수 없었다. 혼자 영어 논문을 뒤졌다. 카그라스 증후군도 그렇게 스스로 알아냈다.

하숙생 같던 남편은 18년의 터널을 함께 빠져나오면서 이젠 김치까지 담그는 ‘고유명사 아버지’가 됐다. 직장을 구한 후엔 친정어머니 도움도 컸다. 하지만 처음엔,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 잡회사 말고 어떤 인간관계도 못 할 만큼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가 참 무거웠다. 나무가 학교는 졸업하고 싶다고 하면 미션 달성은 내 몫이었다. 입원 중에도 아침에 병원 가서 씻기고 교복 갈아입혀 차로 1시간 거리 학교에 가서 다만 1시간이라도 수업을 듣게 해서 수업일수를 채웠다.

이런 필사적 노력은 아이 사랑하는 마음에 더해 어마무시한 죄의식에서 비롯된 거 같다. 의사들이 “어머니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줘 위안받았지만, 박사 공부하고 시간 강사 하느라 온전히 아이를 돌보지 못한 탓일까 두려웠다. 병세가 좋아지기 전까진 죄책감을 떨쳐 내지 못했다. 오히려 수시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첫 입원 1년 뒤 두 번째 입원했을 때도 그랬다. “가짜 엄마 뭐다”며 내 머리 끄덩이 잡아당기던 나무가 병원에 간 다음 날 부엌에서 평평 울었다. “오빠 좋아하려고 입원했잖아”라며 작은 애가 안아준 덕에 정신이 번쩍 났다. “아, 지켜야 할 딸도 있었지, 살아야겠다.”

동네 미장원에 가 “식발해달라”고 했다. 노력해보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좌절 속에서 머리만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더 솔직하는 머리카락 없으면 나무가 잡아당길 수 없을 테니까. 식발 후 머리카락 감느라 누워 있는데, 얼굴에 따뜻한 물 한 방울이 푹 떨어졌다. 미용사 아주머니 눈물이었다. “미장원 20년 넘게 하면서 여자 머리 식발은 처음인데,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잘 되길 바랄게요.”

식발한 머리에 큼지막한 귀걸이를 하고 다녔다. 다들 암 환자, 아니면 무슨 예술가라고 여겼는지 무슨 사연이냐고 묻지 않았다.

“엄마, 잘 사는 내 얘기를 해줘”

난 24시간 대기조 간호사이자 교사,

간병인, 기사도 우미였다. 조현병 환자 엄마로만 24시간 365일 살기란 너무 벅찼다. 평생 병과 동행하려면 일단 나부터 지켜야 했다. 그렇게 찾은 답이 아이와 적당한 거리 두기, 나만의 사회적 정체성 갖기였다. 2012년 4월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을 구했다. 입원하면 무조건 1인실에 들어가야 해서 입·퇴원을 반복한 처음 3년 반 동안 치료비 대느라 살던 아파트를 팔았는데, 직장은 지속적인 치료를 돕는 경제적 이유에 더해 아이 아닌 다른 일에 집중하는 숨구멍이 됐다.

하지만 직장 동료에게도 지금껏 아이가 아프다고만 했지 조현병이라고 밝히진 않았다. 조현병 주홍글씨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나무처럼 환자 3분의 1은 맞는 약을 잘 찾아 통원치료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3분의 1은 입·퇴원을 반복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만성 환자가 된다. 인구 1% 발병률을 고려할 때 환자 수는 30만~40만 명은 될 텐데 건강보험 치료비 청구는 21만 명(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사회적 편견이 적을수록 발병 초기 제때 치료 받고 범죄도 막을 수 있음에도 편견 탓에 치료 없이 방치되는 환자가 이렇게 많은 거다.

편견·방자·위험의 악순환 끊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나무의 조현병 얘기를 글쓰기 플랫폼에 올렸다. 한편으론, 나를 위한 두 번째 거리 두기였다.

나무는 일반 전형으로 들어간 지방 사립대 건축학과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교수는 휴학을 권하고 기숙사에선 쫓겨났다. 다행히 2018년 새로 입학한 산립조경학과는 2023년 무사히 졸업했다. 취업준비 한다며 1년 자취하는 동안 나무는 비록 직장은 못 구했지만 혼자 밥 챙겨 먹고 설거지·빨래·분리수거하는 등 자기 돌봄 훈련을 톡톡히 했다. 정작 문제는 나왔다. 붙들려 있지 않아도 되니까 뜻밖에 외로웠다.

그래서 세종으로 출근하는 기차 안에서 글을 썼다. 이걸 계기로 나무는 지난해 유튜브 출연까지 했다. 남편은 얼굴 공개를 조심스러워했는데, 정작 나무가 “나 좋아진 거 세상에 얘기하려고 글 썼잖아, 조현병 환자도 잘 살아간다는 걸 보여줘야지”라며 용기를 냈다.

18년의 긴 터널 끝에 이젠 웃을 수 있지만, 여전히 웃지 못하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한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면 살아낼 수 있다. 세상이 조금 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버지니아 오피스

김응용 변호사

미국 이민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응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취업이민
- 종교이민
- 투자이민 (EB-5)
- 간호사(RN)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 종교비자 (R)

(Eng/Kor) (구원번호)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시 설

“미국에 31조 투자” 현대차... 국내 일자리 지키기는 과제로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4년간 210억 달러(약 31조원)를 새롭게 투자한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어제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 같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현대제철의 저탄소 자동차 강판 제철소를 세운다. 26일에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조지아주 서베너 공장이 준공된다.

이날 소개된 제철소와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는 총 1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루이지애나 제철소에 1300개, 조지아 공장에 85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조지아 공장은 2019년 서울에서 정 회장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약속

신규 제철소·전기차 공장에 일자리 1만 개 공급
정치권, 반기업 정책 접고 투자 여건 만들어야

된 것으로, 트럼프 2기에 완공을 보게 됐다. 이날 정 회장은 백악관에서 3분40초간 트럼프와 16번 눈을 맞췄다. 트럼프는 “미국에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단한 기업”이라며 현대차를 키켜세웠다.

현대차의 연이은 미국행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현대차가 포니를 앞세워 미국에 진출한 이후 지난 39년간 판매한 자동차는 3000만 대에 육박한다. 연간 미국 내 판매량이 100만 대에 이른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의 생산능력을 20만 대 더 늘려 미국 내 연간 생산능력을 120만 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를 위한 전략적 투자다. 문제는 끊임없이 한국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암울한 현실이다.

특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5% 관세 폭탄’ 시행을 앞둔 트럼프의 일방적 ‘은쇼어링’(미국 내 공장 유치) 정책은 한국의 제조업 공동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부평과 창원 공장을 운영하는 GM조차 트럼프의 25% 관세 업포가 현실화하면 공장 철수를 검토할 것이라는 흥흥한 얘기가 나돌고 있다. 우리가 현실이 되면 1만1000명에 달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되겠나.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한국은 있던 일자리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 현대제철은 현대차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 달라는 노조 파업에 맞서 극단적 처방인 직장폐쇄까지 단행하기도 했다. 경차를 생산하는 ‘광주형 일자리’도 무노조 약속을 깨고 지난해

근로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현대차의 고민이 깊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거대 야당이 주 52시간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반(反)시장·반기업 입법을 쏟아내면서 한국은 점점 더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런 규제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 어제 파인셀타임스(FT)의 지적처럼 미국 투자가 기업 입장에서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탓에 숙련공 확보가 어렵고 임금 부담도 크다.

국내에 투자 여건만 잘 만들어주면 국내 투자를 늘릴 기업도 있을 것이다. 정치권이 대외확성하고 팔을 걷어붙일 때다.

젊은 세대 국민연금 불만, 구조개혁이 해법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30·40대 의원들을 대거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지난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후 청년층에서 불만이 높아지자 내놓은 대안이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졌다. 막판까지도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두고 대립했으나 여당이 고수해 온 43%를 더 높여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어렵사리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합의안 처리 직후부터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의 젊은 의원들은 “혜택은 기성세대가 가져가고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긴다”는 불만을 쏟아낸다.

개혁안을 들여다보면 젊은 세대의 불만을 이해할 만하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 역시 올해 41.5%에서 내년 43%로 인상하기로 했다. 문제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한번에 이뤄지는 데 비해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0.5%포인트씩 올리는 점이다. 곧 연금을 받게 되는 50대 이상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도 미비점을 이유로 합의안을 깨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지나치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SNS에서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것은 최악의 독소조항”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꼴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득대체율은 한 번 올리고 나면 다시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유 전 의원)는 분석에도 일리는 있다. 그렇다고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개혁을 되돌리자는 말인가. 하루 855억원씩 적자액이 쌓이는 현실에서 이번 보수개혁 합의로 기금 소진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한 건 적지 않은 성과다. 특히 정부 목표대로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높인다면 15년 연장 효과가 발생한다.

28년 만에 이뤄진 보험료율 인상 합의를 깨는 행위는 젊은 세대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든다. 여야 합의 내용이 최악이라고 판단했다면 협의 과정에서 당을 설득했어야 옳았다. 이번 개혁안에 대한 미비점 지적에도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 경제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채택을 검토하고 기초연금·공무원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에 젊은 의원이 참여하도록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어렵게 성사된 개혁안을 대안도 없이 거부하라는 요구는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는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다시 절감하는 김명수의 폐해



정통 엘리트인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이 인준 청문회 때 이런 말을 했다. “판사는 야구 심판과 같다. 규칙을 만들지 않고 적용할 뿐이다. 물론 둘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규칙을 따르도록 확실히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한된 역할이다. 야구장에 심판을 보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은가.”

그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 명령에 제동을 건 연방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하자 이례적으로 반박 성명을 냈다. “탄핵이 사법적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대응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은 200여 년 동안 입증됐다. 그 목적을 위해선 일반적인 항소 절차가 존재한다.” 그는 2018년 트럼프의 ‘오바마 판사’ 비난에도 반박했다.

우리는 안다. 심판을 봐야 할 상황이 있고 심판 같지 않은 심판도 많다는 걸 말이다. 그래도 사법부 수장이라면 판사가 공격받을 때 로버츠 대법원장처럼 응수하는 게 마땅하다. 적어도 공개적으로.

우리에겐 정반대의 대법원장이 있었다. 민주당의 ‘출탄핵’이 서른 건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출범 이후가 그렇고, 실재론 한 건 더 있다. 2021년 2월, 퇴직을 불과 20여 일 남겨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관련 1심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란 문구가 있다는 걸 빌미 삼았다. 선고 자체는 무죄였다. 2심에선 그마저도 ‘부적절한 재판 관여’로 바뀌었고 최종심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중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이후엔 외려 방조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탄핵 얘기가 흘러나올 무렵 임 판사가 시작하려 하니 이런 말로 거부한 게 녹취로 확인됐다.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들겠느냐. 오늘 그냥 (사직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하지 못한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정작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했다.

이미 판사가 아니었으므로 파면(인용)할 수 없었다. 사건 접수 267일 만(헌재법엔 180일 이내 선고)이었다. 놀라운 건 재판관 9인 중 진보 성향 3인은 인용해야 한다고 했다는 점이다. 공교롭게 둘(김기영·이석태)은 2018년 재판관 트레이드실의 당사자들이었다. 김 대법원장이 민변 출신(이석태)을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대신 민주당이 김 대법원장의 최측근(김기영)을 지명했다는 의혹이다. 김기영 재판관은 청문회 때 김 대법원장을 “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이런 전개와 구도가 그저 우연일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3년 몰라나며 한 전문지와 인터뷰에서 “무너진 재판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 명백했던 때에, 절박한 마음으로 과거 체제와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대안을 찾아 정립하기 위해 일관되고 독심 있게 전력을 다해 왔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험악한 말이었다. 판사 탄핵은 일례일 뿐이다. “촛불혁명이 없었더라

26일 이재명 선고 앞두고 보니
특정 세력 중용, 재판지연 폐해 커
사실상 심판 아닌 선수 아니었나

도 문재인 대통령은 탄생했겠지만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김 대법원장은 없었을 것”(김인회)이란 말대로 문 대통령이 그 저 그런 판사를 대법원장에 시켰고, 그 덕분에 대법원장이 된 그는 자신을 믿어 올린 세력에 끝까지 충실했다. 제한된 역할을 하는 심판이 아닌 선수였다. 그는 무너진 재판 신뢰를 더 무너뜨렸으며, 특정 인맥이 독주하는 재판부를 남겼다. 모든 재판이 지연됐으며, 어떤 재판은 더 지연됐다.

당장 현재의 탄핵심판이 도드라지지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도 그를 빼놓곤 설명되지 않는다. 6개월 만에 나와야 하는 선거법 1심이 26개월 걸렸다. 그로 인해 26일 선고하는 이 대표의 2심 재판부가 정국 항배를 정하게 됐다. 이미 직을 떠난 사람이란 걸 알면서도 다시 거론하는 건, 그의 잔재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폐해가 너무나도 크다.

중앙SUNDAY 편집국장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55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joongang.co.kr	광고: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02-751-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2-751-9000 / 080-023-5002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국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편집국장: 김중윤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인쇄: 1차: 1000부 이하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구: FINANCIAL TIMES, 일본: 1,000원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p>1. 웃손 하이, 프로스트미들 2025 새싱글 \$1,450,000</p> <p>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p>	<p>6. Clifton 싱글 \$950,000</p> <p>방 4, 화 3.5, 차고 2, 3,300sqft, 센터빌 하이 세입처럼 전부 업그레이드, 새 지붕, 새 HVAC</p>	<p>11. 페어팩스 타운 \$800,000</p> <p>2010년, 방 3, 화 3.5, 차고 2, 2,300sqft, fairOkas mall/50/66/286</p>
<p>2. 찬들리 하이 싱글 \$1,050,000</p> <p>방 4, 화 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merd</p>	<p>7. 맥클린 하이, 럭셔리 싱글 \$2,799,000</p> <p>방 6, 화 6.5, 6,0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세입, 고품격 디자인, 맥클린하이, 롱펠우미들, 495/66/267/123/Old Dominion Dr</p>	<p>12. 페어팩스 콘도 \$580,000</p> <p>방 2, 화 2, 차고 2, 엘리베이터, 계단 없는 단층 콘도, 1,078sqft, 콘도비 \$534.77/m, 66/286/Fair Okas mall, Fair lakes mall</p>
<p>3. 찬들리 하이 싱글 \$1,150,000</p> <p>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교, 방 6, 화 3.5, 4,000sqft, 상당주차, 66/28/50/29</p>	<p>8. 맥클린 하이 싱글 \$2,599,000</p> <p>방 7, 화 7.5, 6,1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세입, 고품격 디자인, 맥클린하이, 롱펠우미들, 495/66/267/123/Old Dominion Dr</p>	<p>13. 센터빌 중심콘도 \$460,000</p> <p>방 2, 화 2, 차고 1, 도어실, 1230sqft, 콘도비 \$348.77/m, Giant, 66/28/29</p>
<p>4. 센터빌 싱글 \$1,150,000</p> <p>새집같은 모델, 모던 디자인, 전부 리모델링, 방 6, 화 4.5, 차고 2, 솔라 패널, 6,228sqft</p>	<p>9. 페어팩스 중심 타운 \$825,000</p> <p>방 3, 화 3.5, 3,000sqft, 236/66/29/50, GMU, 지하주차, 워터, 맥, 펜스</p>	<p>14. 찬들리 새타운 렌트 \$3,600</p> <p>방 3, 화 3.5, 차고 2, 2,300sqft, R166/28,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워그먼, 코스모,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p>
<p>5. 센터빌 싱글, VIRGINIA RUN \$925,000</p> <p>방 4, 화 4, (매인/ 풀베스), 차고 2, 3,2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9/28/66</p>	<p>10. 찬들리 하이 타운 \$599,999</p> <p>방 3, 화 3.5, 1,980sqft, 맥, 워크아웃 지하 (맥, 풀베스), 50/286</p>	<p>15. 헌튼 새콘도 \$3,000</p> <p>방 2, 화 2.5, 차고 1, 1,600sqft, RT28/267/01노베이션 메트로역 걸어서,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Giant Food, Restaurants</p>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LA 광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March 26 2025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평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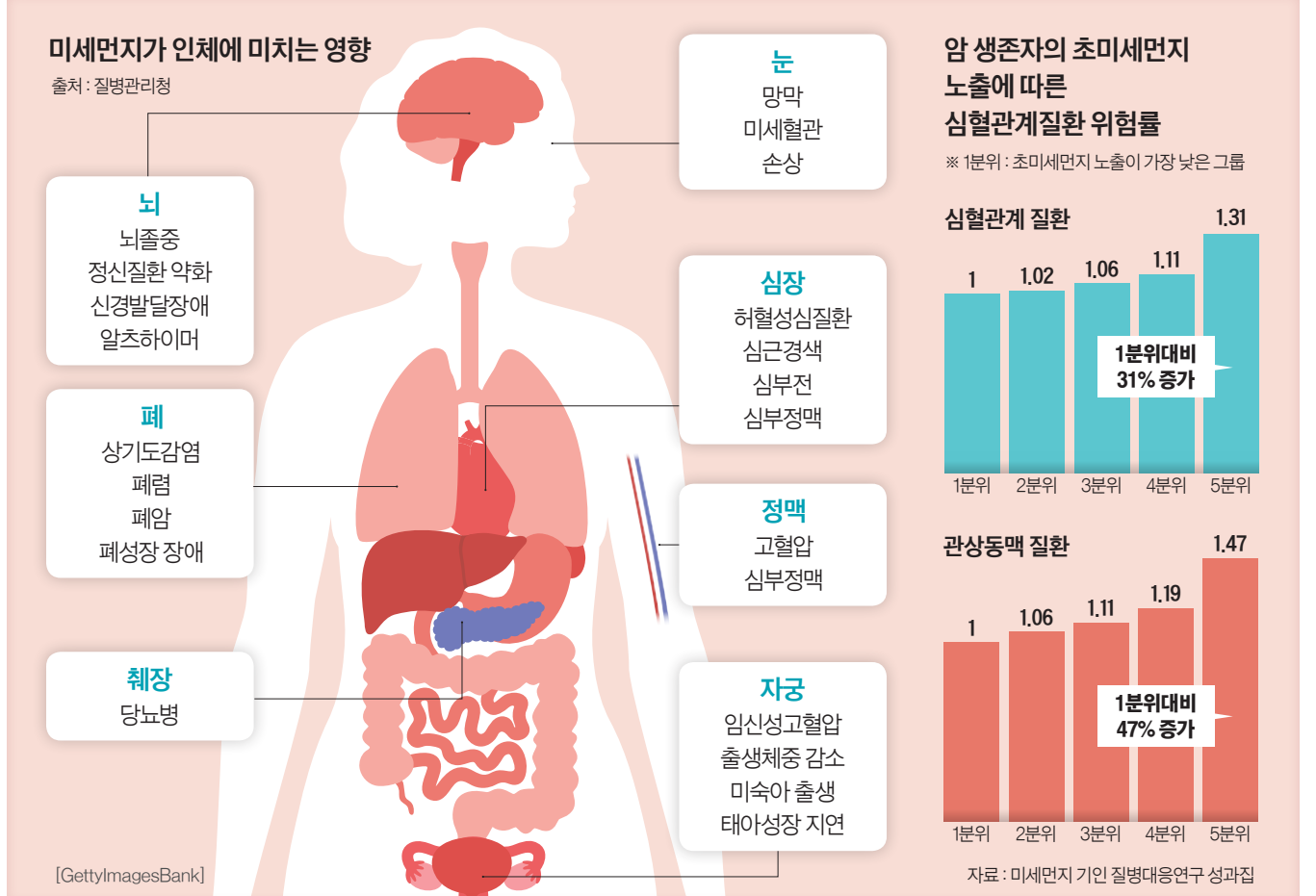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하루 세 번 이상 환기... 늦은 저녁이나 새벽은 피하라

겨울에서 봄으로... 환절기 건강관리법
일교차 크고 꽃가루·미세먼지 증가
비염·결막염 등 알레르기 질환 유발
물 하루 최소 1L 이상 꼭 마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3월, 막바지
꽃샘추위마저 물러가면 한껏 따뜻해진
기온으로 움츠렸던 우리의 어깨도 펴지
고, 여기저기 피어나는 꽃과 푸릇푸릇
자라나는 나무들로 우리의 마음도 환해
지고, 그동안 참아왔던 야외활동도 많
아지는 마음 설레는 시기이다.

충분한 수면과 식사로 면역력 증강
다만 이 시기는 급격한 기온 변화와 일
교차, 꽃가루와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우리 몸에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
는 시기이기도 하다. 겨울철 기온을 부
렸던 감기 바이러스는 급격한 온도 변
화로 면역이 떨어진 틈을 타 우리를 공
격하기도 하고, 꽃가루의 경우 알레르
기 비염이나 천식, 결막염 등 다양한 알
레르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미세먼지의 공격은 단기적, 장기적
으로 다양하게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뇌·심장·폐 등의 주요기관을 공격
하고 면역이 취약한 고령·어린이·임산부
및 영유아와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알
레르기질환자 등과 같은 민감군에 특히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
치료를 마친 암 생존자의 경우도 초미세
먼지 노출이 많아질수록 심혈관계 질환
및 관상동맥 질환이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신체가 외부 환경 변화
에 적응해야 하는 환절기에는 건강을 유
지하기 위한 신경 쓸 부분이 많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온변화나 습도,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뉴스나 기
후, 미세먼지 관련 앱 등을 이용하여 그
날그날의 기후 상황을 체크하고 이에 맞
는 일상생활의 수칙을 지켜나가도록 신
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②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마
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코로나
감염 시기를 거치면서 마스크 사용이
많이 친숙해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미
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답답하더
라도 그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③ 또한 꽃가루가 많이 날리거나 미
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야외 활동을 줄

이는 것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실내가
실외보다 미세먼지 등이 낮은 것이 일반
적이고, 또 가능하다면 공기청정기를 사
용하는 것도 권유한다. 다만 하루에 3회
이상,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늦은 저녁
이나 새벽 시간을 피해 충분한 자연 환
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④ 외출 후 손 씻기와 위생관리에 신
경 써야 한다. 미세먼지나 알레르기 요
인이 될 꽃가루, 오염 물질이 묻은 손으
로 눈이나 피부를 만질 경우 결막염이
나 피부염, 심한 경우 호흡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출 후 귀가 시에
는 반드시 손과 얼굴, 몸을 씻어야 하고
외출복에도 오염원이 묻어 있을 수 있어
깨끗하게 털어주거나 베란다 등에 분리

관리하여 오염원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
이 생활화되어야 할 것이다.
피부 상하기 심상, 보습제 발라줘야
⑤ 위생관리와 더불어 충분한 수분섭취
가 필요하다. 물은 우리 몸의 노폐물 분
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체
온 조절이나 체내, 점막내 건조한 상황
을 막아 미세먼지 등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일 수분 섭취
권장량은 일반 성인의 경우 하루 약 2L
정도를 수분 섭취를 권하고 이중 절반은
음식으로 보충되기 때문에 물이나 음료
는 하루 1L 정도를 마실 것이 권장된
다.
▶▶ 2면 '하루 세 번 환기'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초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초 앞 7700 건물 6층

몸속에 채운다, 빠르고 느린 맥박 살리는 '심장워치'

오일영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부정맥과 내과적 시술 방법

심하면 사망 부르는 심장 빠른 맥
가슴·옆구리에 충격기 삽입해 조절
느린 맥은 치료 약물도 따로 없어
영구 심박동기로 제대로 뛰게 해야

지난 번에는 불편한 부정맥(들쭉맥·조기박동), 뇌졸중 유발 부정맥(심방세동·심방조동)에 대해서 다루었다. 오늘은 위험한 부정맥과 그 치료 방법(내과적 중재술 중심으로)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위험한 부정맥은 증상이 있을 때 치료하는 조기박동, 뇌졸중 예방 치료를 하는 심방세동/조동과 달리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치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한 부정맥이다.

'도자절제술' 성공률 높고 재발 드물어 심실은 전신, 폐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펌프 역할을 하는데, 심실에서 빠른 맥이 생기면 펌프의 기능이 떨어져 심장이 정지하는 것과 같아 매우 위험하다. 특히 심실의 수축 기능이 저하되며 부정맥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장의 출력이 매우 떨어지면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심실빈맥(심실 빠른 맥), 심실세동(심실 잔떨림)이 지속되어 의식을 잃었을 때 빠른 치료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같은 원인 질환을 치료 후에도 심한 심장기능 저하가 있으면 급성심장사의 예방을 위해 심장충격기를 왼쪽 앞 가슴 혹은 옆구리 부위에 삽입하기도 하며 이를 삽입형 제세동기라고 한다. 유전성 질환으로 인해 심실빈맥, 심실세동이 발생했을 때도 삽입을 한다.

심장의 세포들은 수축을 통해 펌프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스스로 전기신호를 발생하여 심장의 박동수를 조절한다. 심장에서 전기신호를 만들어 내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심장전도계라 하는데, 이 전도계의 기능이 약해져 필요한 만큼의 심박수를 만들어 내지 못하거나 심장의 전기신호를 전도하는 부분이 손상되어 심박과 심



실의 전기 전달이 차단되면 매우 심한 느린 맥이 발생을 하게 된다.

보통 분당 60회 미만인 경우 느린 맥(서맥)이라고 하는데, 심한 느린 맥의 경우에는 분당 40회 미만이거나 심한 경우 3초 이상의 심정지가 발생하게 된다. 빠른 맥을 느끼게 하는 약물은 있지만 느린 맥을 빠르게 뛰게 하는 약물은 없어서 이 경우에는 심박동기를 몸속에 삽입을 해야 한다. 이를 영구형 심박동기라 하고 앞서 언급한 삽입형 제세동기 보다는 낮은 전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다. 최근에는 전극선이 없는 심박동기도 있어서 심장 내벽에 작은 전기장치를 삽입하기 때문에 가슴 부위에 상처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빠른 부정맥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약물로 적절히 치료되지 않는 빠른 부정맥도 많다. 이 경우 허벅지의 굵은 혈관을 통해 가는 도관을 심장 부위까지 올려서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심근 부위

에 열 혹은 냉각을 통해서 과사를 만들어서 부정맥을 치료한다. 이를 부정맥도자절제술이라고 한다. 약제에 비해 도자절제술은 대부분의 빠른 부정맥에서 훨씬 높은 성공률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심장 안에 비정상적인 전기줄이 있는 급작스런 심실위 빠른맥(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경우에 도자절제술의 성공률은 매우 높아서 재발이 매우 드물다. 최근에는 3차원 지도화 방법 등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성공률은 올라가고 합병증의 발생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심방세동·심실빈맥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심장의 주변에는 식도, 횡경막신경 등의 주요장기들이 존재하는데, 심장 내벽에서 도관을 이용하여 상처를 내는 과정에 주변 장기까지 손상을 주게 되면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합병증을 낮추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

으로 라디오 주파수의 전기를 흘려서 열을 발생시켜 상처를 내는 전극도자가 가장 오랜 기간 사용되었고 3차원 지도화 방법, 도관의 압력 센서 등을 이용해서 합병증을 낮추고 있다. 냉각풍선 도관은 냉각가스를 주입해서 주변 조직을 얼려서 상처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전극도자에 비해서 시술시간을 많이 줄였다.

최근에 나온 펄스장 절제술은 도관에서 고전압을 걸어 세포막에 구멍을 내서 세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심근만 선택적으로 파괴하고 주변 조직에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국내에 신기술로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보험수가를 받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우 높지만 추후 보험수가를 받으면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방식의 도관 절제술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모두 효과와 안정성은 검증이 되어서 시술자가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방식으로 시술을 받으면 된다.

▶ 1면 '하루 세 번 환기'에서 이어집니다

⑥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신체가 외부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 섭취는 대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비타민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⑦ 환절기가 되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공기가 더욱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는 더욱 민감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위생 관리에 더해 피부 보습 관리가 중요하다.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고,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틀어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바르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해야 한다.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할 수 있는 생활수칙도 일상의 분주함으로 때론 당장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과할 수 있다. 그리고 호흡기가 좋지 않은 고위험군, 면역이 취약한

민감군의 경우는 이러한 일상 속 관리가 우리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는 기온 변화가 크고, 알레르기과 같은 건강 문제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정소연 / 국립암센터 유방암외과 전문의**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학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샬리스프링 롯데 아울렛(Home-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찰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양(Home-Mart)과 찰틀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똥배 없는 86세의 비결, 매일 자연이 준 보약 500g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

만성질환 막는 채소·과일

한국 성인 10명 중 3명이 비만인데 권장량 섭취자는 10명 중 2명 불과 매끼 채소 한 접시, 간식으로 과일 하루 다섯접시로 성인병 등 예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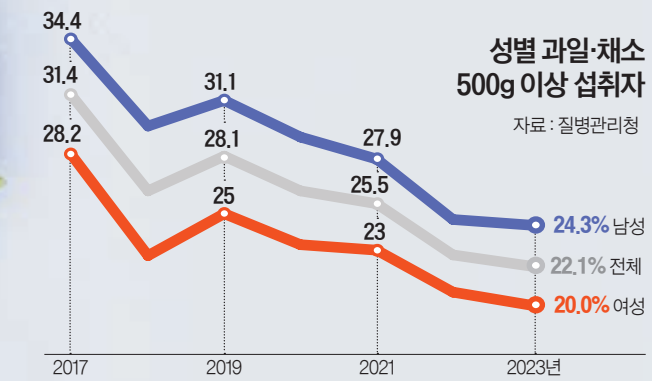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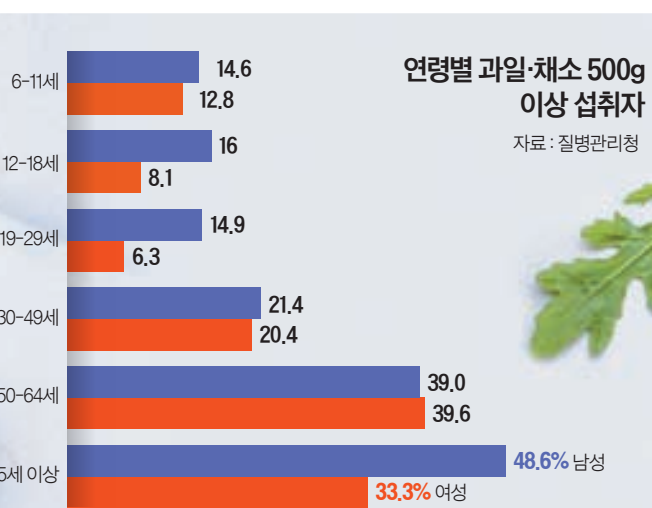
얼마 전,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로 유명한 케롤리나 헤레라가 86세임에도 불구하고 세월을 거스르는 몸매의 비결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그녀가 즐겨 먹는 메뉴에는 항상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필자 역시 매일 채소 샐러드 100g씩 두 번은 기본적으로 먹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회식이 잦은 보직을 맡다 보니 체중이 늘어 식습관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였다. 함께 들어 있는 소스는 너무 달아 대신에 말사믹 식초와 올리브유를 적당히 뿌려서 먹는다. 학교 보직을 맡는 동안에도 점심 약속이 없는 날에는 일부러 샐러드와 소스를 가지고 출근해 사무실에서 먹었다. 미리 씻어져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봉지에 담긴 채로 포장된 야채라 먹기가 편리하고 가격도 적당했다. 회식이 있을 때는 식탁에 나오는 채소와 과일은 무조건 다 먹거나 더 주문하기도 해서 어떻게든 채소와 과일 섭취를 생활화하려 노력했다.

비타민·무기질·식이섬유 등 영양 풍부

서울대가 인문사·기업들과 함께 하는 ‘기업건강경영문화 캠페인’ 중 하나로 체중조절을 위한 채소와 과일 섭취를 생활화하기 위해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를 알아본 차에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만든 유튜브 동영상 상을 보니 하루 500g 이상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한국영양학회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권장하는 양이다. 성인병과 암 예방을 위해서는 채소와 과일을 5접시, 매 끼니 채소 1접시씩을 그리고 중간에 간식으로 과일을 먹으면 된다.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무기질·식이섬유·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해 암과 만성질환 예방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 이번 주말부터 채소

와 과일을 보약이라 생각하고 하루 채소와 과일 500g 섭취를 생활화하자.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보약이다. 처음 먹어 보는 음식은 불편할 수 있지만, 3~6개월 계속 먹게 되면 습관이 되어 맛있어지고 나중에는 즐기게 된다. 누구나 경험하듯이 입맛은 변한다. 맛은 습관이다.

우리 국민은 채소와 과일을 얼마나 먹고 있을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24년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황지윤 상명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451.3g과 비교해 2022년에는 350.5g으로 10년 만에 100g 이상 줄었다. 하루 과일 및 채소 섭취량이 500g 이상인 분율은 2014년 38.2%에서 2023년 22.1%로 감소해, 권장량 이상을 섭취하는 국민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30대 미만에서는 15% 전후이며 10



대와 20대 여성은 8.1%, 6.3%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 성인 10명 중 3명 이상이 비만이며, 남성은 절반이 비만이다. 건강보험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6명 중 1명은 비만이며 비만 학생 20.2%는 당뇨병 전단계, 1.1%는 당뇨병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하루 과일 및 채소 섭취량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 하루에 100g 과일이나 샐러드를 1~2개만 더 먹으면 된다. 비만인 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다.

베리류 키운 핀란드, 암 사망률 53% 감소
미국·캐나다·핀란드 등 여러 국가가 나서서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핀란드의 ‘노스카렐리아 시범사업(North Karelia Project)’이 흥미롭다. 핀란드는 국가의 주요 산업인 낙농업을 베리(딸기류) 작물산업

으로 전환(Berry program)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해 베리 판매 및 베리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버터 소비를 줄이고 저지방 우유와 채소 섭취를 증가시키는 등 식습관을 변화시켰다. 그 결과 30년 후에는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75% 줄었고, 암 사망률도 53% 감소했다.

비만을 단순히 개인적인 게으름만으로 탓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황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의 간편한 섭취 방법’(28.4%), ‘쉽게 구매 가능한 환경’(19.7%), ‘저렴한 가격’(17.5%) 등의 조건이 갖춰진다면 신선한 채소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문화를 위한 개인과 기업,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협력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덴마크 정치드라마 ‘여총리 비르기트(Borgen)’에

서 비르기트가 회의 테이블에 있는 과자를 과일로 바꾸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나라도 회의할 때 다과 대신에 바로 먹을 수 있는 사과나 귤, 혹은 컵에 든 과일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다. 2011년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건강식품 5년 계획’을 통해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취약 지역에 300개 매장을 신설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사업 발표장에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직접 참석했다. 식품회사와 유통업체들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직원들에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며 국가는 개인과 기업에 국가 정책과 예산으로 지원하자.

전문의 칼럼 영선한의원

치질 “기온 더 높아지기 전에 치료해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봄철 큰 일교차에 노출되면 각종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앓던 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항문 질환인 치질도 마찬가지다.

치질은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인 치핵, 치열, 치루, 항문농양, 항문가려

움증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우리가 보통 치질이라 부르는 것은 대부분 치핵으로, 전체 치질 환자의 70~80%가 치핵에 해당한다.

이 원장은 “겨울동안 항문 주위가 가렵거나 따가움, 작열감, 배변 시 통증 등 증상이 있었다면 치질 초기 증상으

로 의심하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점점 기온이 올라가면 딱과 습도로 증상이 더 나빠지고 일상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치질은 혈관중으로 어혈 덩어리가 뭉쳐 혹(치핵)이 된 것이다. 이 원장은 “외과적인 치질 수

술은 원인을 찾아 치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치핵을 제거하는데 그쳐 재발될 수 있다.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무를 잘라도 다시 자라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치질 환자의 80% 정도가 항문소양증을 앓게 된다. 치질 연고제는 대개 스테로이드,

진통제, 윤활제 등이 주성분인데 이를 장기 사용하면 항문 피부가 얇아지고 피부염, 가려움증 등이 생기는 부작용 우려가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통해 원인을 바로잡고 속부터 치료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선재 원장 / 영선한의원

김창용 발 전문병원

발이 아프시면, 이제 김창용 발 & 발목 전문의에게 맡겨 주십시오!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 이 발이 불편한 것을 그냥 참거나 넘기지 마세요. 발이 불편하시면 일단 거동이 어렵게 되고, 생활이 불편해져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발이 아프거나 불편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증상이 있습니다. 환자 개인에게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족부의학 전문의
Dr. Chang Yong Kim D.P.M.

Dr. 김창용 원장

- Kent State University, College of Podiatric Medicine
- Podiatric Surgery Residency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Wound Care Fellowship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Certified
- Hyperbaric Medicine Team Training Course Certification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진료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병 발 관리 • 발 및 발목 골절 • 망치 발가락 • 당뇨 신발 • 상처 치료 • 건막류 • 기능성 발 보조기 • 족저근막염 • 사마귀 및 궤양 • 관절염
----------	---

예약 문의

703.394.4818

통역 서비스 제공

www.footankledc.com

2922 Telestar Court, Falls Church, VA 22042 / 1550 Wilson Blvd. Suite 105, Arlington, VA 22209

‘비만치료제’ 위고비, 득보단 실 클 수도

다이어트 키워드 팩트체크

체중 감량은 많은 사람이 소망하는 목표 중 하나다. 신년 계획 목록에 빠지지 않고 오른다. 손에 잘 잡히지 않다 보니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손쉽게 살을 빼는 방법을 갈구한다. 그리고 이런 관심은 트렌드로 이어진다. 황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칼로리커팅제, 저탄고지 등 매년 다이어트 트렌드도 달라진다. 특히 올해는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위고비’ ‘혈당 스파이크’ ‘간헐적 단식’이 주목받았다. 2024년을 달군 다이어트 키워드를 짚어봤다.

위고비

정상 체중에서 효과·부작용은 ‘글쎄’ 위고비(Wegovy)는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와 유명 모델 킴 카다시안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출시 이전부터 이례적인 관심을 모은 비만치료제다. 강력한 인슐린 분비 자극호르몬인 GLP-1의 성질을 이용한 약제다. GLP-1은 인슐린 분비를 늘려 혈당을 낮추기도 하지만 소화기관 운동과 식욕을 억제해 포만감을 빨리 일으키면서도 배고픔은 늦추는 성질이 있다. 배가 불러 적게 먹는 효과가 있다. 위고비의 효과는 괄목할 만하다. 당뇨가 없는 과체중 성인 대상으로 68주간 이뤄진 임상시험 결과 평균 15.8%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 이전 버전인 삭센다(6.4%) 대비 효과는 2배가 넘고 투약

(주사) 간격은 주 1회로 늘려 효과와 편의성까지 잡았다.

효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위고비 열풍이 과열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정상 체중인 사람의 미용 목적 사용이다.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kg/m²)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동반 질환이 1개 이상일 때만 처방할 수 있다. 정상 체중에 대해서는 효과와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다.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는 “위고비는 정상 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체중 감량 효과와 부작용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체중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거나 거의 체중이 줄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 부작용 우려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는 “매스거림, 구토, 설사, 변비 등 소화기 부작용이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이고 드물게 췌장염이나 담석증 등도 보고된다”고 말했다.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혈당스파이크

집착시 영양불균형 우려 혈당 스파이크도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피해서 섭취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된다는 논리다. 급기야 연속혈당측정기를 착용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찾아 다이어트를



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다이어트 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우선 당대사에 이상이 없는 사람의 다이어트 목적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당 지수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다이어트라는 점도 지적되는 부분이다.

박 교수는 “당뇨병 전 단계인 고도비만 남성 환자가 있었는데 연속혈당측정기를 착용하고 혈당 관리는 잘됐지만 콜레스테롤 수치와 체중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당 지수에만 집착하다 보니 육류나 포화지방 섭취는 많아진 경우였다”며 “전체 영양소의 균형이나 전반적인 열량 섭취가 중요하지 체중 조절에 탄수화물만 중요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도 “혈당이 서서히 오르는 음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 여부를 측정해 섭취하는 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혈당 스파이크를 고려한 다이어트는 단지 케이크·가공식품 등 열량이 높은 음식의 일부가 당 지수가 높다는 데

서 온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간헐적 단식

먹는 것보단 비우는 데 초첨

간헐적 단식은 오래 유지되고 있는 다이어트 트렌드다. 일정 비율의 식사와 단식 시간을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다이어트다. 그중에서도 16:8 단식이 핫하다. 하루 중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16:8 단식으로는 ▶오전 10~12시에 점심, 오후 6~8시에 저녁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어떤 것도 먹지 않는 방법 ▶오전 6~7시에 아침, 오후 2~3시 중에 점심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어떤 것도 먹지 않는 방법이 통용된다.

간헐적 단식은 전문가들도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다. 박 교수는 “16:8 단식은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하기도 한다”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고 합리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시간제한 다이어트”라고 말했다. 야식을 먹지 않고, 비워주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무조건 두 끼만 먹고 하는 방법은 아니고 굶이 16:8이 아니라 12:12 단식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헐적 단식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한끼의 집중적인 섭취다. 서 교수는 “간헐적 단식은 지속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이라며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이 그대로거나 더 많아진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정훈 기자

건강 칼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두통

51세의 여성환자가 갑자기 발생한 두통으로 필자를 찾아왔다. 환자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였다.

생전에 이렇게 심한 두통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 두통외에 환자는 뒷목도 뻐뻐하였고, 속도 미식거리며 구토를 하였으며, 걷기도 매우 불편하여 어질어질 하다고도 하였다.

환자를 진찰하였을 때 두눈의 동공의 크기가 달랐으며 한쪽 동공은 빛에 대한 반응이 매우 느려져 있었다.

환자는 뇌의 기질적 이상에 의한 이차성 두통을 강하게 의심하여 생사를 다투는 응급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응급 뇌촬영을 시행하였으며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캔상에 뇌기저부에 출혈이 관찰되었다. 이어서 시행된 뇌혈관 조영술에서 불행히도 환자의 대뇌동맥의 한부위에서 파리모양의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으며 이 곳에서부터 출혈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환자는 곧바로 중재적 뇌혈관 색전술을 받을 수 있었으며 다행히도 생명이 위독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가 파리모양으로 부풀어 있는 경우로 인구의 1%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각증상이 없으나 일부의 경우 파열되어 뇌출혈을 일으킨다.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은 보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통 뇌지주막 아래의 출혈을 일으키며, 이때 머리 속에 충격과 더불어 생애에서 가장 심한 두통을 경험하게 된다. 뇌동맥류에 의한 출혈은 매년 인구 10

만명당 약 10~20명 정도 발생 한다고 하는데, 이는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과 더불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신경과적 응급상황이기에, 조기에 이를 발견해야 만이 위험한 상황을 모면 할 수 있다.

뇌동맥류 파열시 약 15%에서는 출혈이 심하여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약 3% 경우 우연히 뇌동맥류가 발견되며, 여성 인구에서 약간 더 많이 발생하고 40세 이상의 연령에서 가장 흔하다고 한다.

머리가 아픈것은 일생 동안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매우 흔한 증상이지만, 위 여성환자와 같은 갑자기 발

생한 두통, 또 새로 경험한 두통, 점차 심해지는 두통, 또는 두부강직(목이 뻐뻐함), 어지러움증이나 다른 신경과적 소견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두통이라면, 이를 가벼이 넘겨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 두통은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과 같은 흔한 일차성 두통과 달리 뇌 실질의 병변, 위의 예와 같은 뇌동맥류 파열, 뇌종양, 뇌경색 등에 의한 이차성 두통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우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진료,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상담 문의: 임정국 신경내과 Tel : 571-620-7159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Care People Home Health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배려,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4/7 ~ 4/11 → 전화 예약 필수!

구인 - 애난데일 사무직원 구함 (한국어, 영어 가능하신 분)
- Billing Coordinator -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소셜 초과지급 회수, 월 수령액 100%로 확대

지금까지 최대 10% 한정
27일부터 회수 강화 선회
수령자 부담 커질 전망

소셜연금 초과지급(overpayment) 회수 정책이 강화된다. 사회복지장국(SSA)은 지난 15일 초과지급에 따른 월 지급액 중 회수 비율을 1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새 회수 정책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이후 지급되는 초과지급은 전액 회수에 들어간다. 27일 이전에 발생한 초과 지급이나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D)에 대해서는 기존의 10% 회수 정책을 유지한다.

회수비율 10%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개혁안을 통해 시행한 것이다. 초과지급이 발생하더라도 월 수령액의 10%까지만 회수하도록 해 생활에 큰 무리가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월 수령액이 2000달러이고 초과지급 액수가 1000달러인 경우 한 번에 1000달러가 아니라 수령액의 10%인 월 200달러까지만 회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마저도 수령자가 회수 요청을 무시했을 때만 10%를 적용했다. SSA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초과지급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최대 10% 회수는 수령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였다. 실제로 2023년 카이저가족재단(KFF)의 보고서에 따르면, 100% 회수 정책을 시행했을 당시 일부 수령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휴리스가 되기도 했다. 다시 100% 회수로 돌아가면 일부 수령자는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에 바뀌는 정책에 따르면 초과 지급액을 100% 회수하기 전에는 소셜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또 초과지급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월 지급분에서 빼온다. 초과 지급 판정을 받은 수령자는 한 달 치 소셜연금을 전액 회수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회보장 복지단체인 '소셜 시큐리티 워크스'의 낸시 올트먼 대표는 "수령자 대부분은 초과 지급 사실을 알지 못한다. 정부의 지급액이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갑자기 정부로부터 수천 달러를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절박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소셜연금으로 메디케어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매월 소셜연금에서 자동 공제되는데, 연금이 회수되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수도 있다. SSA는 이런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올트먼 대표는 "보험료를 못 내면 의료 혜택이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초과지급 회수로 어려움을 겪는 수령자는 SSA 양식632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면제 승인을 받으려면 ▶초과 지급이 본인의 과실이 아니고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SSA 양식561을 이용해 초과지급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생계유지가 어려우면 SSA에 상환 일정 조정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회수 면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는 최근 SSA의 전화 상담 서비스를 폐지하려 했으나 워싱턴포스트가 이를 보도한 뒤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DOGE는 이미 10개 이상의 소셜 오피스를 폐쇄했고 추가로



소셜연금이 초과지급됐을 때 지금까지 월 수령액의 10% 안에서 회수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이를 100%로 확대하기로 해 시니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4개 주에서 47개 사무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DOGE는 SSA 예산 감축을 목표로 7000명 감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대면과 전화 서비스가 축소되면 초과지급 회수 면제나 이의 신청 기간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SSA 직원이 줄면 행정처리 오류로 초과지급이 늘어날 가능성 커진다.

이번 회수 강화 정책의 목표는 SSA의 계산 착오로 발생하는 초과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SSA는 초과지급액을 회수해야 하고 방법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SSA는 이번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70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최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복지 프로그램에서 매년 낭비와 부정 수급으로 70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SA 감찰관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지급액은 2015~2022 회계연도에 약 720억 달러 규모였다. 해당 기간 전체 지급액의 0.84%였다.

초과지급 발생 원인으로 ▶SSA 직원이 수령자 정보를 제때 업데이트하지 않았거나 ▶수령자가 본인의 소득 변동 사항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SSA는 복잡한 규정 때문에 수령자가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부 수령자는 전략적으로 초과지

급을 선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년 이전에 연금을 신청하고 계속 일을 하는 경우 연소득에 따라 초과지급이 발생한다. 그러나 본인의 연소득이 한도를 초과하지 불확실한 경우, 일부 수령자는 연말까지 소득을 확인한 후 회수를 감수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소셜연금 초과지급의 상당 부분은 SSA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행정 실수와 부정 수급의 정확한 비율은 보고하지 않았다. 마틴 오말리 전 SSA 국장은 대부분의 초과지급이 부정 수급이 아닌 행정 오류나 수령자의 소득 신고 누락 등으로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유희 객원기자

소식하면 오래 산다? 12%만 줄여도 된다!

국립노화연구소 연구

많은 사람이 익히 알고 있는 장수비결은 적게 먹는 것, 바로 '소식'이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우리 선현들의 가르침이 사실이고 증명까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싶으면, 아침에 스페셜티 커피를 마시거나 점심에 집 한 봉지 등 하루에 수백 칼로

리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2년에 걸쳐 하루 칼로리 섭취량을 12% 줄인 성인, 즉 2000칼로리 일일 식단에서 하루 240칼로리를 줄인 사람이 건강하고 노화와 관련된 생물학적 경로를 활성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섭취 칼로리 감소는 에너지 생성과 대사를 담당하는 유전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염증 유전자의 활성을 감소시켜 염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의 루이지 페루치(Luigi Ferrucci) 박사는 보도 자료에서 "염증과 노화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

문에 칼로리를 줄이는 것은 많은 시니어에게 발생하는 염증 유발을 예방하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만성 염증은 알츠하이머, 심장병, 제2형 당뇨, 암과 다양한 고령자 질환과 관련이 있다.

이 연구팀의 이전 연구에서는 칼로리 제한이 성인의 노화 속도를 2~3%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는 사망 위험을 10~15% 줄이는 데 충분했다. 다른 연구에서도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DNA 손상을 줄이고 심장 건강, 수면 및 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병희 기자

고령 영주권자 공항 심사 주의 해외 장기체류자에 포기 압박

최근 영주권자, 특히 고령의 인도계 이민자들이 공항에서 세밀한 심사와 2차 검사를 받거나, 심지어 하룻밤 구급과 함께 법적 신분 포기를 강요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은 특히 손자-손녀를 보기 위해 인도에서 장기 체류했던 고령의 인도계 영주권자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CBP가 장기 해외 체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한 것으

로 보여, 한인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공항에서 압박을 받더라도 절대 영주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개인의 영주권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공항에서 즉각 철회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영주권 철회 권한은 이민 관사에게만 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도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이민법에 따라 재입국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최근에는 체류 기간이 이보다 짧더라도 의심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의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력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축구 종가’ 잉글랜드는 자존심을 접고 라이벌 독일 출신의 토마스 투헬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뒤 순항 중이다. 25일 라트비아전에서 오른쪽 감야차기로 프리킥 선제 골을 터뜨리는 잉글랜드의 리스 제임스(3번).

자존심 내려는 축구종가, 월드컵 향해 파죽지세

“환상적이다.” 25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주장인 해리 케인(32·바이에른 뮌헨)은 지난해 10월부터 대표팀을 이끄는 토마스 투헬(52·독일) 감독 지도력을 이렇게 표현했다.

잉글랜드는 이날 영국 런던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월드컵 유럽예선 K조 2차전에서 리스 제임스(첼시)-케인-에베레치 에제(크리스털 팰리스)의 연속골로 라트비아를 3-0으로 완파했다. 2연승의 잉글랜드(승점 6, 골득실+5)는 알바니아(승점 3, 골득실+1)와 라트비아(승점 3, 골득실-2)를 승점 3차로 따돌리고 조 선두를 달렸다.

지난 22일 월드컵 예선 1차전에서 알바니아를 2-0으로 잡고 잉글랜드 사령탑 데뷔전 승리를 따낸 투헬은 2연승을 달렸다. 잉글랜드는 투헬 체제에서 치른 이들 2경기에서 가공할 화력(5골)과 잔물 수비(무실점) 등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영국 미리는 “투헬의 완벽한 출발”이라고 보도했다.

케인은 “투헬 감독이 빨리 팀에 녹아 들었다. 그의 에너지와 열정 그리고 전술 분석이 우리 팀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투헬은 “선수들이 승리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대단하다.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잉글랜드는 과거에도 외국인 감독을 선임한 적이 있다. 스벤-에란 에릭손(스웨덴·2001-06년), 파비오 카펠로(이탈리아·2007-12년) 감독이다. 하지만 적어도 축구에서만은 ‘양속’ 관계인 독일 출신 감독은 잉글랜드 축구사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영국 언론은 잉글랜드가 독일과 맞붙을 때마다 전쟁에 빗댄다. 독일을 향한 약감정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을 공습했던 과거까지 거슬러가기도 한다. 그런데 성적만 놓고 보면 ‘축구 종

58년 넘게 메이저 무관 잉글랜드 새 사령탑에 첼시·뮌헨 이끈 투헬 양속인 독일 지도자 선임 반발에도 대표팀은 알바니아·라트비아 격파



경기 중 수비수 루이스(왼쪽)에게 작전 지시하는 투헬 잉글랜드감독.

주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잉글랜드는 1966년 자국 대회 우승이 유일한 월드컵 우승이다. 반면 독일은 월드컵에서 네 차례(1954·74·90·2014년) 우승했다.

2018 러시아월드컵 4위, 두 차례 유럽축구선수권(유로2020·24) 준우승 등 전임 개러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끝내 ‘우승의 한’을 풀지 못하자,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굵직한 성과를 냈던 독일인 투헬 감독에게 손을 내밀었다.

뛰어난 전술가 투헬은 파리생제르맹(PSG·프랑스), 첼시(잉글랜드), 뮌헨(독일) 등 빅클럽을 이끌며 우승 트로피 12개를 모은 명장이다. FA는 월드컵 우승을 위해 자존심을 접었다. 투헬도 부임 기자회견에서 “한계를 넘어 월드컵에서 우승하겠다”고 말했다.

투헬은 부임 첫 경기인 알바니아전부터 탁월한 지도력을 뽐냈다. 그가 중

용한 19세 신예 풀백 마일스 루이스 스켈리(아스널)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과묵한 다혈질의 투헬을 부정적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여전히 있다. 투헬은 경기 시작 전 영국 국가를 따라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일찌감치 “잉글랜드 선수와 팬들에게 ‘우리 감독’으로 인정받는 자격을 갖출 때 국가를 부를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또 지난 1월에야 업무를 시작한 투헬은 처음 3주간 독일에 머물러 재택근무 논란에도 휩싸였다.

한편 북중미월드컵 참가국은 종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됐다. 유럽의 본선 진출권도 13장에서 16장으로 늘었다. 유럽축구연맹(UEFA) 회원국 중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격이 정지된 러시아를 뺀 54개국이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다. 각 조 1위 12개국이 본선에 직행한다.

피주영 기자

한화 임상백 “팀 동료 연결, 가을야구로 전속력 질주”

지난 시즌 13승, 준척급 FA 발돋움 4년 78억, KT 떠나 한화서 새 동지 “류현진·문동주 사이서 활약 할 것”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는 지난해까지 6

년 연속으로 포스트시즌에 나가지 못했다. 매년 거액을 들인 대형 자유계약 선수(FA) 영입이 무색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메이저리그에서 뛴 류현진(38)을 복귀시키고 김경문(67)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지만 8위에 그쳤다. 올해만

큼은 진짜로 가을야구 진출을 버린다. 신구장(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고, 무엇보다 강력한 선발 투수진을 갖췄기 때문이다. 선발진의 핵심 연결고리가 오른손 사이드암 임상백(29)이다.

지난겨울 FA 시장에서 한화가 4년 총액 78억원에 영입한 임상백을 지난 23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만났다. 수원구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KT 선수였던 그의 흠이다. 그는 “KT가 아닌 한화 유니폼을 입고

수원구장을 찾으니 감회가 새롭다. KT 시절 동료와 프런트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다. 특히 식당 어머니들이 ‘우리 상백이 왔네’라며 맞아 주셔서 더욱 기뻐다”고 말했다. 이어 “데뷔 후 이적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어색하다. 그나마 한화 새 동료들이 친구처럼 대해줘 적응을 빨리 마쳤다”고 덧붙였다.

고봉준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아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오스카 주·조연 수상, 명성과 커리어 큰 영향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

브로디, 22년 만에 남우주연상
무어 제치고 '매디슨' 여우주연상
'셀다나' 도미니카계 최초 영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남녀 주연상 및 조연상 등 4개의 연기상이 주어진다.

작품상에 노미니된 영화들에 출연한 주·조연 배우들이 주로 연기상 후보에 오르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강력한 여우주연상 후보로 접쳐졌던 데미 무어의 출연작 '서브스틴스'는 작품성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졌음에도 후보 지명을 받았다.

오스카를 수상한 배우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없다. 그러나 오스카 수상 배우에게는 커리어 내내 그 명예가 따라다닌다. 높은 출연료의 캐스팅 제의가 줄을 서고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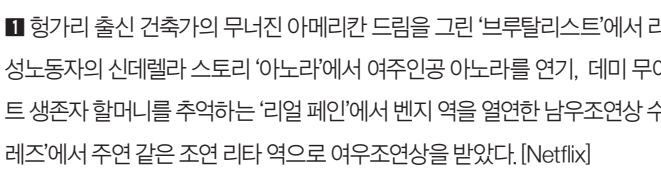
최우수 남우주연상은 당초의 예상대로 '브루탈리스트'의 애드리언 브로디가 수상했다. 2002년 29세에 '피아니스트'로 이 부문 최연소 수상을 기록한 이래 22년 만에 다시 남우주연상을 수상, 2회 이상 받은 11번째 배우가 됐다. 브로디는 공교롭게도 두 작품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연기했다.

브래디는 모국 헝가리에서의 명성을 뒤로하고 미국에 이민, 부유한 자들 앞에서 굴욕을 견뎌야 했던 건축가 라슬로 토스 역할을 연기했다.

그는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수많은 이민의 혼합체를 상징하는 인물 라슬로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동시에 트라우마의 생생한 고통을 감내해낸 인물을 연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컴플리트 언노운'의 티모시 샬라메가 강력한 경쟁 후보였지만 배우조합상(SAG)에서의 수상으로 만족해야 했다.

많은 비평가는 브로디가 '피아니스트'에서의 연기를 뛰어넘는 커리어 최



1 헝가리 출신 건축가의 무너진 아메리칸 드림을 그린 '브루탈리스트'에서 라슬로 역을 연기, 생애 두번째 남우주연상을 받은 애드리언 브로디. [A24] 2 성노동자의 신데렐라 스토리 '아노라'에서 여주인공 아노라를 연기, 데미 무어를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받은 마이키 매디슨(오른쪽). [NEON] 3 홀로코스트 생존자 할머니를 추억하는 '리얼 페인'에서 벤지 역을 열연한 남우조연상 수상자 키에란 컬킨(왼쪽). [Searchlight Pictures] 4 조 셀다나는 '에밀리아 페레즈'에서 주연 같은 조연 리타 역으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Netflix]

고의 연기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배우가 캐릭터에 녹아 들어간 듯한 그의 연기는, 사진작가로 활동하다 라슬로처럼 모든 걸 잃어버리고 헝가리를 떠나야 했던 그의 어머니가 모티브가 됐다. 유대계인 브로디는 자신의 개인사에서 어머니를 상기하고 그 이미지를 허구적 캐릭터 라슬로에 반영했다.

불과 26세의 유대계 배우 마이키 매디슨은 데뷔 45년 차 베테랑 무어를 제치고 2025년의 신데렐라로 부상하며 작품상 수상작 '아노라'의 여주인공 아노라 역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당초 최우수 여우주연상은 '서브스틴스'에서 호연한 데뷔 45년 차 베테랑 데미 무어가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됐다.

올드 팬들은 65세가 되어서야 커리어 최고의 연기를 인정받은 무어가 수상하길 바랐다. 실제로 무어는 오스카 이전 골든글로브, 비평가상(Critics' Choice), 배우조합상(SAG)의 여우주연상을 연거푸 수상, 오스카도 그녀의 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난 45년 동안 과소평가되

어온 무어의 연기가 시상식에서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은 끝내 오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무어의 여우주연상 수상 실패를 '아노라'의 5관왕보다 더 큰 뉴스로 다뤘다.

국제영화 부문 수상작 '아이 엠 스틸 히어'에서 강철 같은 의지로 군부 독재에 저항하며 5자녀를 지켜낸 어머니 유니스를 연기한 페르난다 토레스를 올해 최고의 여배우로 평가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비영어권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에게 인색한 할리우드의 전통을 깨지 못했다.

최우수 남우조연상은 예상대로 드라마 코미디 '리얼 페인'에서 열연한 '나혼자 집에'의 아역스타 키에란 컬킨이 차지했다. 남우조연상은 이미 오스카상 이전의 모든 상을 휩쓸고 있던 컬킨의 차지가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컬킨이 연기한 벤지 역이 현재 그가 출연 중인 드라마 '석세션'에서의 로만과 매우 유사한 캐릭터라는 점, 그리고 이 부문 경쟁자들인 유라 보리소브(아노라), 가이 피어스(브루탈리스트), 에드워드 노튼(컴플리트 언노운)처럼 출



연작이 작품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사실 등이 취약점으로 지적됐지만 컬킨의 강세를 꺾지 못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할머니의 죽음 후, 사촌 형 데이비드(제시 아이젠버그)와 함께 할머니의 고향 폴란드를 방문, 할머니를 추억하는 중 느끼게 되는 학살된 영혼들의 고통을 체험하는 벤지는 2025년 관객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캐릭터 중 하나였다.

컬킨의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는 연기 덕분에, 무례하며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늘 사고를 치는 인물 벤지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성장통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관객의 마음속에 각인됐다.

세대를 잇는 아픔,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냉소적 유머로 접근, 위험한 영역 안에서 코믹함과 엄숙함을 동시에 끌어내려는 아이젠버그 감독의 의도는 컬킨의 빛나는 연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에밀리아 페레즈'에서 유색인종에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변호사 리타로 분한 조 셀다나의 최우수 여우조연상 수상도

예견됐던 일이다.

셀다나는 이날 오스카상을 받은 최초의 도미니카계 배우로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셀다나는 제작사의 캠페인 전략상 여우조연상에 노미니됐지만 주연상 부문에서 경쟁을 벌였어도 수상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발군의 연기력을 과시했다. 실제로 그녀는 칸 영화제에서 이례적으로 다른 3명의 여배우들과 함께 최우수주연상을 받았다.

여우주연상에 노미니된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보다 진정 영화를 살린 건 조 셀다나의 연기였다. 대중의 관심이 트랜스젠더 배우 가스콘에게 몰리는 동안, 평단은 이 영화에서 커리어 최고의 연기를 보인 셀다나의 연기를 더 높이 평가했다. 그녀는 상대적으로 에밀리리아에 비해 캐릭터의 깊이가 부족한 리타 역을 노래와 춤, 연기로 조화된 매혹적 퍼포먼스로 캐릭터와 작품 전체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셀다나는 '에밀리아 페레즈'를 통해 완벽함에 가까운 뮤지컬 배우로 거듭났다. 리타의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윤리, 도덕적 갈등, 에밀리리아를 향한 자매애는 자크 오디아르 감독의 뮤지컬 '에밀리아 페레즈'의 중추적인 소재다. 그녀가 영화에서 보인, 8년간의 폭발적 퍼포먼스는 전율을 전하는 올해 최고의 씬스틸러 장면이었다.

여우조연상 부문에는 '콘클레이브'에서 가부장적 세계에서 여성이 지닌 침묵의 권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수녀 아네스 역의 이사벨라 로셀리니와 '컴플리트 언노운'에서 밤 딜런의 연인 조안 바에즈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낸 모니카 바르바가 경쟁했지만 셀다나의 강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에밀리아 페레즈'는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작품이다. 만약 셀다나마저 조연상을 놓쳤다면 13개 부문에 후보를 내고 고작 주제가상 1개 부문만을 수상, 오스카 사상 최악의 결과를 낳은 영화로 기록됐을 것이다.

김정 영화평론가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BRADDOCK FAMILY DENTAL
Children & Adults: Sedation, Cosmetic & Implants

브래덕 패밀리 치과

www.BraddockFamilyDental.com

진료시간 월 ~ 금: 8 ~ 5PM
수요일: CLOSED

최신 3D 장비보유, 최첨단 CT 촬영과 디지털 X-RAY, Intra-oral Scanner로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최선의 치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원장 조상욱 (Samuel Cho, DDS, FICOI)

- UVA
- MCV School of Dentistry
- AEGD Residency @ MCV
- Fellow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Oral Implantologists (ICOI)
- Invisalign Certified Provider
- American Dental Association
- VA and Northern VA Dental Society

모든 치과보험(PPO) 받습니다. 메디케어 (VA SMILES FOR CHILDREN) 받습니다. 메디케어 보험 받습니다. •Anthem(Liberty) •Aetna •Humana •United

Be Social with Us!

오피스
571-339-3628
한국어 상담
571-339-3682

(조지메이슨 대학 건너편)

Braddock Rd

★
Braddock Family Dental
10513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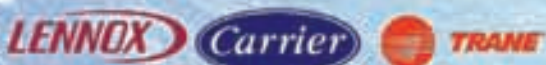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before after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중앙일보 온라인 쇼핑몰 **핫딜** **3월의 핫딜 세일**
 H O T D E A L S S U P E R S A L E S
 *매달 찾아오는 핫딜의 통큰 세일혜택! 이번 달에도 아낌없이 받아주세요~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엄선된 녹용과 홍삼 농축액의 효과 (선물용 쇼핑백 포함)
 스트레스없이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 국산 6년근 홍삼의 원료
김오곤 명품 녹용 홍삼스틱 15gx30포
 소중한고마운분에게드리는건강에너지 **\$89.90**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세상에서가장편한신발
맞다맞다
피트니스 **맞다**
 narzio TWO ARE BETTER
 Performance WHITE Performance BROWN Performance BLUE
 골프 및 평상시 년슬립 워킹화로 적합한 고급 가죽 골프화
 외피 내구성, 내한성, 경량성이 뛰어난 극세사 원단과 방수소재
나르시오-골프 퍼포먼스 워킹화
 보아 다이얼을 적용 **화이트, 브라운, 블루** **\$200**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이삭방앗간 한국산 참깨와 들깨 100%로 만든 선물세트
 저온에서 단 1회만 압착, 착유하여 잡내없이 고소한 맛과 향
저온 압착 국산 참기름&들기름 300ml
 최고 품질의 건강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59.99**

미국 공식런칭 최신상 물만 섞어 자극없고, 손상없는 염색
 대한민국 1등/ 피부두피 저자극/ 쉬운 염색/ 재구매율 1위!!
씨드비 김혜수 물염색약 12회분
 모두가 인정한 국민 새치 염색약, 씨드비 ~~\$80~~ **\$49.99**



무료 배송 Free Shi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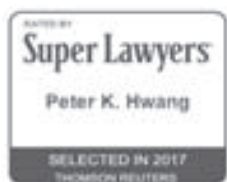
진정-보습-건조예방 3중 케어, 저자극 포뮬러의 쫄쫄한 텍스처
 피부탄력강화 지선체™가 2배 함유, 2배 더 탄탄한 피부로!
Sulwhasoo 설화수 탄력크림 75ml
1개 \$79 2개 \$148

PLALA Silicone Steamer
 Mint, Pink Color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새로운 쿡라이프의 시작! 요리를 더 간편하고 맛있게
 실리콘찜기 600ml 민트or핑크/1200ml 민트or핑크
플라라 다용도 실리콘 찜기
 100°C 열탕소독, 안전실리콘 **\$22.99**

교통사고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3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혜택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대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금 매

-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 (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첸들리 VA

- ▶ 연매상 100만+25만
- ▶ 급하게 처리원함
-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짜실 주말 가능한 분, 유무경력자
443-386-0515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풀/파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 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콧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리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 / 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 /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 경향 많은 Handyman - Part Time Office 관리자 -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 지역, MD -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MD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무경력자 구함.
albert@w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사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 요양원에서 일하실 분 풀/파트타임 입주 가능. 경력자 우대. 엘리콧시티
240-426-5678

▶▶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줄 분. 남녀 불문 경력자 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티트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 메릴랜드 JESSUP - 화장품 회사 (NYX L'OREAL) 세일즈 남자 구함
풀타임, 컴퓨터 사용 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

분 연락바랍니다.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 볼티모어 케이스톤스빌 지역 베이글샵에서 주 3-4일 7시-3시까지 도와주실 분 연락주세요
443-797-3938

▶▶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과 토요일 또는 하루 일하실 서버 구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 AM - 8:00 PM -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
240-678-5395

▶▶ 엘리콧시티 장수 실링당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캐슈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이미용/기타

4월 또는 2월. 일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 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 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 픽업 바느질 하실 분(파트타임) / 엘리콧 시티
410-926-32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 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는 분 구합니다.
301-926-3638 / 301-538-4246 (Soo)

싱글/타운방 렌트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5분거리 반지하방(출입구 별도), 주방, 욕실,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욕실/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여성분
240-413-2738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룸 욕실 딸린 이층 큰방, 반지하방(출입구 별도) 주방, 욕실, 인터넷, 가구완비
301-538-1438

볼티모어 오임스밀스 좋은 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 하나 렌트 유무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룸.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무
443-631-7866

우드스탁 반 지하 단독, 화장실, 침대, 출입문 별도, 금연, MD
443-983-1880

▶▶ 엘리콧시티 타운홈 렌트 메릴랜드 10Th Street, 방 3개, 화장실/사위 넓고 잘가꾸어진 집. 롯데/한양로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 2/부엌 1/화장실 1/출입문 별도
301-257-7126

▶▶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룸 렌트 방 5, 화장실 4, 차고 2, 좋은 환형,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룸 방 4, 화 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사이언트엠펀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 근무) 부부 가능. 좋은 장정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 5천불 판매 / 하노버 메릴랜드 엘리콧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 / 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링 / 저렴한 임대 / 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케어피플 홈헬스 (애난데일 오피스) Billing Coordinator (한국어, 영어 가능하신분)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2024년에 본인 또는 가족 소득이 \$67,000 미만인 경우 세금보고 무료 서비스 안내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 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형,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에서 파트/풀타임 직원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 "Annandale, VA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 영주권 스폰 가능
Email : jkim0111@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 근무 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력자 우대
▶문의: 571-348-3723

▶▶ 스마트보험 Contracting/Recruiting Specialist, Life & Annuity Specialist (W2) 신입/경력모집
- Life & Annuity Specialist: Life Agent 유급휴가 우대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 PTO/Sick Leave - Visa 및 영주권 스폰 가능 지원: smartagent@solomonus.com
703-639-0882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티트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버스 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공인 회계사 사무실 (Annandale)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 채용 경험자 우대. 베네티트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Email: acct2014a@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 업무 직원 구함. 유급휴가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company.com

홀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홀케어 또는 보험등 유급휴가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찰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리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찰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급휴가/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턴/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 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 지원 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 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 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식품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하실 허바피 셰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타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 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짜실 분 풀타임 M-F (7am-4pm) 유급휴가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 불문 유급휴가 캐슈어 구함
703-774-744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이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 골퍼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임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교량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밀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 / 유리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휴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MD 업소 안내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씽폼프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핑수리/거러교체 ◆사이드 리페어/창문 ◆데크 수리 ◆드라이얼/페인트 ◆파워워시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형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캐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독자가 행복 해진다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as we speak; 말하는 순간

Luana is moving and a friend is helping her.
(루애나가 이사를 하는데 친구가 도와주고 있다.)

Gra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se books?
그레이스: 여기 있는 책들은 어떻게 할 거야?
Luana: I'm going to get rid of them why? Do you want them?
루애나: 버리려고 하는데 왜? 네가 가질래?
Grace: Sure, I have a thing for books.
그레이스: 좋지. 나 책 좋아하잖아.
Luana: You can have them.
루애나: 그럼 네가 가져.

Grace: What about the candle holders?
그레이스: 촛대는 어떻게 할 건데?
Luana: I don't know. If you can use them they're yours.
루애나: 몰라. 쓸 수 있으면 네 거 해.
Grace: I have a perfect place for them. Thanks.
그레이스: 촛대 놓기 딱 좋은 데가 있어서. 고마워.
Luana: Don't mention it. 루애나: 무슨 말을.
Grace: Have you painted your new apartment yet?

그레이스: 새 아파트는 페인트 칠 했어?
Luana: It's being painted as we speak.
루애나: 지금 칠하고 있을 거야.

기억할만한 표현

▶ get rid of (something): (무엇을) 버리다. 팔아치우다.
"I got rid of my old car last week."
(내가 타던 낡은 차는 지난 주에 팔아버렸어.)

▶ (one) has a thing for (someone or something): (사람이나 물건을) 아주 좋아하다.
"Sarah has a thing for that handsome boy in the red sweater." (저기 붉은색 스웨터 입은 잘 생긴 남자 애 있지. 새라가 아주 좋아하는 애야.)
▶ Don't mention it: 천만에요.
Sally: "Thank you for giving me a ride to school." (샬리: 학교까지 태워줘서 고마워.)
Carol: "Don't mention it." (캐롤: 천만에.)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1) 딱하고 안타까운 행편을 털어놓고 말함 (3)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 □게□ (5) 내 코(콧물)가 석 자. 자기 사정이 급하여 남을 돌볼 겨를이 없음. □비□□ (7) 가슴과 배가 만나는 곳의 한 가운데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 (9) 대구와 비슷하나 몸이 훌쩍하고, 등지느러미가 세 개로 상태에 따라서 생태, 동태, 노가리, 황태, 북어 등으로 불리는 물고기 (11) 긴 낚시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다 (13) 울려고 하는 얼굴 표정 (14)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시기 (16)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힘 (17) 종이, 피륙, 가죽 따위로 만든 큰 자루. 시멘트 열 ~ (18) 쓸데없이 많수가 많음 (20) 몸에 털이 나고 네 발을 가진 동물. 동물원에는 온갖 새와 ~이 모여 있다 (22) 돈이나 물건을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 돈을 내는 금전적 ~가 1회 성인데 비해 재능 ~는 한 단계 진화한 ~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24)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김. 사람은 죽어서 명예를 남겨야 함. □□유□ (26) 우물물을 퍼 올리는 데 쓰는 도구 (27)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어 들어간 곳. ~에 흐르는 시냇물.

세로열쇠

(1) 처음으로 인사할 때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줌 (2) 낮 열두 시 (3) 아주 가까운 거리. ~이 천리라 (4)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목이나 명칭 (6) 강물이 운반하여 온 모래나 흙이 쌓여 이루어진 편평한 지형 (8)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큰 상처.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 (10) 나라에 혼란 따위가 없어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는 시대 (12) 쇠붙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짚는 도장. 한번 찍으면 지워지지 않죠 (13)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을 빠르고 시원스럽게 끝냄. 우리는 ~으로 일을 서둘러 마칠 수 있었다. □□다□ (15) 비행기의 앞부분. ~를 남으로 향하다 (17) 어린 아이를 덮어 주거나 입을 때 쓰는 작은 이불 (19)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 보통 있는 예사로 온 일 (21)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장치. 엘리베이터 (23) 배를 대어 사람과 짐이 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 (24) 지질 시대 나무의 진 따위가 땅속에 묻혀서 탄소, 수소, 산소 따위와 혼합하여 굳어진 누런색 광물. 속에 곤충에 들어 있기도 하죠 (25) 살가죽과 뼈. ~이 상접하다.

스도쿠

		8	7	2		6	
		5	9	1		4	8
		3		5		9	7
6	7	1	4				
		4			2		6
		9	6			5	8
8	1	6			7		9
3	4			6	9		7
		7	2	4	8		6
						6	3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3	6	1	8	4	2	7	5	9
7	5	8	9	6	2	1	4	3
8	6	2	7	3	7	5	9	1
4	8	5	4	1	7	6	9	3
2	3	6	7	1	5	8	4	9
5	8	4	1	6	9	3	7	2
6	9	3	5	8	4	1	7	2
1	7	6	9	5	8	3	2	4
2	8	4	3	1	6	5	9	7
5	3	9	4	2	7	8	6	1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EXP. DATE: /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2025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5 봄학기 개강 3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상담전화 | 213-272-6031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기타 지역 **매매** **40년된 덴탈랩매매**
 살기좋은 세크라멘토지역 품격있는 고객들과 성장할 아주 좋은 기회 (*가격문의) 꼭 관심있는분 이메일주세요 Hcho07@sbcglobal.net
테리아키 매매 (\$75만)
 워싱턴주, 월렌트 \$3,715 인기지역에서 10년이상 운영된 안정적인 To Go 전문 년매출: \$1.2M, 년순익 25만 John Lee (469)900-7073
세탁소매매
 텍사스지역 가격\$18만, 렌트\$1,400 월매상 \$25,000 (806)894-3044 (213)663-2770
이민생활의 나침반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트레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양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세기초기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213)675-6877 OC(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항흥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너지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취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라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새봄맞이 2025년산 NEW제품 출시기념
 신정식 박사의 30년 약초연구 비방이 담겨있는 매일 먹는 위장영양제 **속편해**
 한달분 정가 \$120 **2+1할인**
 2개사면 1개더 **(2+1)** 위장의 체질을 개선해 위장을 힘있게 강하게!
신정식박사
속편해한의원 213-393-0999 / 213-334-1100 **속편해 구입처** 711 S. Vermont Ave # 205, LA CA 90005
 별문 갤러리아 (213)388-4100 / LA 갤러리아약국 (323)733-7200 / 한국약국 (323)464-3925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Little River Tnpk.

중양일보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e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e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